

8-3-2015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영석교회를 중심으로

Sung Hyun Cho 조성현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조성현,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영석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 SEOK CHURCH

written by

SUNG HYUN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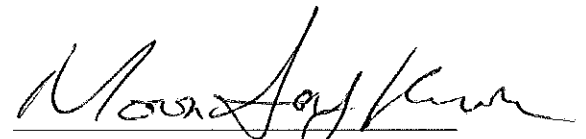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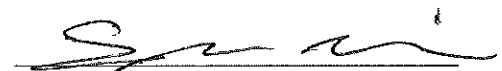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3, 2015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 SEOK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HYUN CHO

AUGUST 2015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 영석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조 성 현

2015년 8월

Abstract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 Seok Church

Sung Hyun Cho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uses library research and field research to search for ways to activate small groups in a local church. Researching biblical models for healthy community and analyzing current Korean churches, this paper is a quest for the right solutions to the weakening community spirit in the Korean church.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Following an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clarifies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and examines the role of community in the church's essence. It also provides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urch's community. Chapter 3 examines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t also suggests small group ministry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urrent church system and presents the usefulness of small group ministry.

Chapter 4 investigate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Seok Church. It analyzes the weaknesses and difficulties that the Young Seok Church is facing now. Chapter 5 focuses on strategies to activate small groups in the church. It points out the deficiency of the church's sense of being One Body. Reviving worship services and communion is also presented as part of the way to recover the church community.

The concluding chapter summarizes the main ideas of this paper and proposes

biblical insights and vision for church growth. From the recovery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numerical growth follows naturally. The chapter emphasizes the leadership of the lay people in the church. It also points out the need to pay the price to educate the healthy and powerful lay people. By not giving up the process of training lay people, spiritual reproducing will happen eventually. Strong small groups will nourish new believers and become a driving force in the church.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먼저 폴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하시고,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목회를 하면서 갈급해 하던 교회 성장과 평신도 사역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폴리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폭넓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권분상 교수님과 최승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마칠 수 있기까지 헌신적인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섬겨 주신 영석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실 동역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아들을 위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며 지금은 천국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위를 위해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린 동생이 기쁨으로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큰 매형, 큰 누님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복회 생활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김현조 사모와 지칠 때마다 늘 신선한 활력소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들 하준이와 하윤이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감사를 전합니다.

2015년 8월 조성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이해	5
제 1 절 교회의 어원적 의미	5
1. 구약의 어원적 의미	5
2. 신약의 어원적 의미	6
제 2 절 교회의 성경적 개념	8
1.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교회	9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11
3.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교회	13
4.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16
5.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18
제 3 절 교회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	20
1.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성	20
2.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24
3.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25
제 3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소그룹 사역	30
제 1 절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	30
1. 공동체 개념의 희석화	31
2. 현대 사회의 심리적 특징	32
3.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는 한국 교회	34
제 2 절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들	35

1.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	35
2. 물량적 성공주의	37
3. 개교회주의	39
4. 목회구조	40
제 3 절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41
1. 소그룹의 정의	41
2.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43
가. 소그룹의 장점	43
나. 소그룹의 필요성	44
3.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	46
제 4 장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	49
제 1 절 지역사회 이해	49
제 2 절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	52
1. 영석교회의 역사	52
2. 영석교회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54
3. 영석교회의 사역의 문제점과 평가	55
가. 목회 리더십의 부재	55
나. 예배의 감격 부재	56
다. 양육과 훈련의 부재	57
4.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역의 변화들	58
가. 예배	58
나. 훈련과 양육	62
다. 전도	63
라. 교제	63
제 3 절 영석교회의 소그룹 형태 분석과 평가	63
1. 영석교회의 소그룹 형태 분석	64
가. 목장 소그룹	64

나. 교육위원회 소그룹	65
다. 찬양 소그룹	65
라. 전도 소그룹	66
마. 중보기도 소그룹	66
2.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열매들	66
3.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문제점	67
가. 현대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의 어려움	67
나. 목회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68
다. 평신도 사역자의 부족	68
라. 리더와의 소통 부족	69
마. 변화와 성장의 경험 부족	69
바. 남성 소그룹 사역의 어려움	70
사. 원거리 소그룹의 어려움	70
제 5 장 영석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72
제 1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	72
1. 소그룹 비전 공유	73
2. 소그룹 예배 교육	76
3. 소그룹 중심의 목회 구조 갱신	77
4. 소그룹 리더십 확립	78
가. 부모로서의 리더십	79
나. 코치로서의 리더십	79
제 2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81
1.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81
2. 소그룹 리더 개발 전략	82
가. 소그룹 리더의 조건	82
나. 소그룹 리더의 훈련과 관리	84
3. 지속적인 소그룹 개발과 관리	87

가. 소그룹 활성화 위원회 구성	87
나. 새로운 소그룹 개발	88
다. 기존 소그룹의 지원	88
4.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	89
가. 지역 중심에서 관심별 목장으로의 확대	89
나. 온 가족 목장 모임으로의 회복	91
다. 목장의 소그룹으로서의 기능 회복	91
라. 전도지향적인 목장으로의 회복	93
제 6 장 결론	97
참고 문헌	102
Vita	107

표 목 차

<표 1> 흑석동 지역주민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 상황	51
<표 2> 영석교회 교인 분포도	54
<표 3> 소그룹 비전 공유를 위한 설교 계획	7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과거 한국 교회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 선교 2위의 선교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 다원화 된 사회체계 등 여러 가지가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침체는 사회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창조된 교회가 비(非)공동체적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反)공동체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어느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성을 소유한다. 이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직되었다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도들과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룬 유기적 생명 공동체이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성령 공동체이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의 상실로 교회의 유기체적 국면이 약화되어 교회의 공동체성을 나누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이 희석되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높아가는 세속의 물결인 세

속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의 타류에 휘말려 ‘교회의 기업화’, ‘개교회적 분파주의’, ‘기복신앙’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개인의 구원과 영성, 물량주의를 동원한 개교회 성장주의와 교파, 교단 간의 경쟁에만 열을 올려 왔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채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초대교회는 예배, 양육, 전도, 교제, 봉사 등이 조화를 이루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결속되었던 믿음, 사랑, 기쁨의 공동체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이러한 초대교회는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개방형 가족 공동체, 통일성과 다양성이 전제되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적 공동체,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였다.¹⁾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진정한 모델이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연구를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하되 그 방법으로는 소그룹 사역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임을 제시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침체와 쇠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성장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침체와 쇠퇴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서울: 브니엘, 2006), 221-231.

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단순히 양적 성장만을 이루는 대형화를 추구하기보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목회의 중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사역을 교회 사역의 핵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은 소그룹 사역을 그 핵심 방안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있어 소그룹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과 유용성 때문이다. 소그룹은 성도들의 공동체적 삶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성도들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기반이 된다.²⁾ 또한 소그룹은 그 곳에 속한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소그룹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³⁾

이처럼 소그룹 사역의 특징은 교회 안의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여건에 적합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교회 내에 조직한다는 면에서 소그룹 사역은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과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살펴보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영석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평가해 본다. 그리고 영석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소그룹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2)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1.

3)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전의우 역 (서울: 요단, 2002), 83.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언급하고, 2장에서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교회의 어원적 의미와 교회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본다. 이어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 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소그룹 사역을 요청하게 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와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영석교회의 소그룹 형태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열매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 이어서 5장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영석교회가 추구해야 할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 영석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제 2 장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이해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교회의 본질을 공동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그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어원적 의미

교회란 일반적으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⁴⁾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한다. 이처럼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교회의 어원적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과 신약에는 각각 교회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1. 구약의 어원적 의미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구약의 불가분적 관계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이어 번역서인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인 ‘카할’(קהל)과 ‘에다’(עדה)를 번

4) Eric G. Jay, *교회론의 변천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0.

역하여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부르다’를 의미하는 ‘카할’은 어떤 집회의 소집 및 ‘모이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서 모임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한편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다’라는 어근에서 온 ‘에다’는 주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즉 ‘회중’으로 번역한다.⁵⁾

이 두 단어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 받아 모인 모임을 의미했다.⁶⁾ 그러나 70인 역에서 이 단어들은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에다’는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면서 모이는 장소를 더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집)을 의미하게 되었다. 한편 ‘카할’은 이스라엘인의 모임(공동체)을 의미했다. 그리고 70인 역에서 번역될 때 ‘카할’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되면서 신약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처럼 구약에서 교회와 관련된 두 단어인 ‘카할’과 ‘에다’는 70인 역을 통해 신약에서 교회에 대한 명칭인 ‘에클레시아’와 ‘쉬나고게’로 발전되어져 갔다.⁷⁾

2. 신약의 어원적 의미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와 ‘쉬나고게’를 사용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기독교적 의미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쉬나고게’는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이나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회당)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⁸⁾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용어는 에클레시아의 번역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동사 ‘καλεω(부르다)’와 전치사 ‘εκ’의 복합동사인 ‘εκκαλεω’(소집하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 뜻은 ‘-로 부터 불러내다’라는 어원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⁹⁾ 다시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23.

6)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20.

7) Ibid., 20-21.

8)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70.

9) Ibid., 72.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불러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며 집회이다.

신약에는 이러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14회 사용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마테복음 16:18과 18:17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3회, 바울서신에는 46회 사용되고 있다.¹⁰⁾ 김현진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서신에는 에클레시아가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고전 1:2; 고후 1:1; 갈 1:2)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둘째,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롬 16:23, 고전 16:19). 셋째, 특정 지역의 교회보다 더 광범위한 교회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행 9:31; 고전 16:19). 넷째, 보편적 우주 교회 즉 과거,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전 세계 사람들 전체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나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거나 연합될 신자들의 모임 전체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다(고전 10:32, 11:22; 엡 4:11-16, 5:23-25; 골 1:18, 24; 히 12:23).¹¹⁾

한편 루이스 벌콕(Louis Berkhof)은 이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용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에클레시아는 가장 흔히 어떤 일정한 지역 즉 지교회에 있는 일단의 신자들을 나타낸다. 둘째, 어떤 개인집에 있는 교회를 나타낸다. 셋째, 일단의 교회 즉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 적어도 한번 단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이 말은 전 세계를 통하여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하에 예배의 목적을 위해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조직체를 구성한 자들의 전체 단체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다섯째,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나 지상에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거나 연합될 신실한 자들의 전체 단체를 의미한다.¹²⁾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이미 헬라에서는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는 전혀 없

10) 김현진, *공동체 신학*, 24-25.

11) Ibid., 25.

12)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7), 556-557.

이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면서 그 성격을 구별하였다고 말한다.¹³⁾

이에 대해 분석호는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교회라는 개념이 바울서신에서 비로소 신학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점차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교회론을 전개해 나간다고 말한다.¹⁴⁾

현재 교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church’라는 명칭은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된 퀴리아케(kuriake)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주님께 속한’을 뜻하는 하나님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¹⁵⁾ 한스 쿡(Hans Küng)은 이것을 ‘주님께 속한 집’ 즉 ‘주님(Kyrios)의 공동체’라고 말한다.¹⁶⁾ 이에 대해 김현진은 ‘주님께 속한’이란 뜻의 퀴리아케(κυριακή)라는 단어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게르만 계통의 표현들 즉 영어 ‘church’, 스코틀랜드어 ‘kirk’, 독일어 ‘kirche’, 스웨덴어 ‘kyrka’ 그리고 슬라브어 ‘cerkov’가 나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라틴어 계열에 속한 표현들 즉 라틴어 ‘ecclesia’, 스페인어 ‘iglesia’, 프랑스어 ‘eglise’, 이탈리아어 ‘chiesa’ 그리고 웰쉬어 ‘eglwys’는 신약의 ‘에클레시아(ekklesia, ἐκκλησία)’에서 파생된 용어들이었다고 말한다.¹⁷⁾

제 2 절 교회의 성경적 개념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볼 때 교회는 그 자체로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어원적 의미만으

13)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9), 64-65. 뱅크스는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첫째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의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둘째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공동체의 특성이다. 셋째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가정공동체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초국가적이며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서의 공동체이다. Ibid., 76-77.

14) 분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71.

15)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57.

16)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63.

17) 김현진, *공동체 신학*, 24.

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조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곳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찾는 근거는 가장 먼저 성경에 두어야 한다.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부르면서 어원적으로도 공동체성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다섯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교회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본다.

1.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교회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고후 6:16, 딤후 2:19, 딤후 2:14, 히 4:9; 8:10, 11:25; 벧전 2:9-10; 계21:3)이다. 이에 대해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한다.¹⁸⁾ 교회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새로운 사람들의 집합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⁹⁾

이처럼 신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연속성 때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된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성취된다.²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창 12:2; 15:18). 그 후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출 6:6-7).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

18)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71.

19) 박영철, “교회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호, 57.

20)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79.

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관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과 맺은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다. 시내산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새 언약'을 세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선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롬 9:24). 이 새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통합되었다.²¹⁾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이 된다(갈 3:29). 따라서 신약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9-10)라고 말한다. 이처럼 신약 기자들은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을 가진 말로 지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속과 확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고전 1:2)이다.

이에 대해 한스 쿡(Hans Küng)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성화된 사람이므로 어떤 특정 계급이나 신분은 아니며, 교회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에클레시아이며 온 신앙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은 동등하다.²²⁾

21) Palmer Robertson,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91.

22)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5.

이러한 한스 쾅의 주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뤄지는 교회로 보아야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신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그릇된 교회관이라는 것이다.²³⁾ 결국 이러한 한스 쾅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집된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롬 1:6).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월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롬 9:24-2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개념은 교회에 대한 정의 중 가장 탁월한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상호 협력적 ‘집합인격’(corporate personality)이다.²⁴⁾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비유로 설명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아실 뿐만 아니라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고전 12:27; 골 1:18).²⁵⁾ 이러한 바울의 교회관에 비추어 볼 때

23)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6-93,

24) Eric G. Jay, *교회론의 변천사*, 24. ‘집합인격(corporate personality)’으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은 고린도전서 15:22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즉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아담과의 인종적 일치 속에 있듯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일치 속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지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참되다. 이러한 바울서신의 인용 구절들 안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보편주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곧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아있는 실체이며 그 몸은 마치 육체가 성장하듯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하나의 기구가 아니다. 살아 있는 유기체적인 인격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삶이다.²⁷⁾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강조점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에 대하여 가지는 그리스도의 주권성과 몸으로서 성도들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 교제와 질서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복한 하나님의 백성 상호간에 또한 세상과 새로운 관계 질서를 맺는 인간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²⁸⁾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는 교회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몸의 각 지체가 몸에 붙어있어 몸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문상 교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⁹⁾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관계성이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유기체적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 또한 어디서든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보편적 교회의 개념으로 발전된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2:4-5과 고린도전서 12:6-21에서 이 관계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즉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각각 다른 지체가 되어 상호책임성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의존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도 이와 같이 그 구성원들이 그리

25) 이종성, *교회론 I*, 49.

26)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87.

27)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98.

28) Robert Webe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50.

29)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25-226.

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전제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는 성육신적인 의미와 하나 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의 성육신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계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회의 하나 됨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전적으로 하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재 형태라는 것이다.³⁰⁾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실재로 현존하고 계신다. 이에 대해 레이 스테드먼(Ray C. Sted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거룩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점이다. 그는 백성 가운데 살고 계신다.”³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성을 알고 상호 존중과 의존, 협력을 통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몸 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³²⁾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개념은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하나의 공동체임을 제시한다.

3.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엡 2:19; 딤후 3:1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셨다.³³⁾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회복일 뿐만 아니

30) Robert Webe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53.

31) Ray C. Stedman, *Body Life* (Glandale: Reagal Books, 1972), 15.

32) 김현진, *공동체 신학*, 37.

33) 김세훈,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7), 124.

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획기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19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언급하고, 디모데전서 3:15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한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household of God)으로 묘사함으로써 교회가 사랑의 가족 관계로 엮여져 있음을 말한다.³⁴⁾ 이에 대해 박영철은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³⁵⁾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바울의 가족 비유는 그가 사용한 어떠한 공동체 비유보다도 그의 공동체 사상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³⁶⁾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으로 독자적 의식의 소유자이면서 사랑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따라서 그 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 실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적으로 ‘가족적’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³⁷⁾

이에 대해 릭 워렌(Rick Warren)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한다.³⁸⁾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 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없다. 따라서 가족들은 구성원 상호간의 삶이 결정적으로 의존 관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친밀하고도 강력한 관계이다.³⁹⁾ 이에 대해

34)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173.

35) Ibid., 173-174.

36)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90.

3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57.

38)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3), 157.

39) 박영철, “교회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58.

권문상 교수는 성경적 공동체서의 키워드는 바로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둘, 그것도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또한 이스라엘을 한 가족 공동체로 훈련시켰던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형제애적 가족 구조 형태를 만들어 주셨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⁴⁰⁾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강조점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가족공동체의 중심 원리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뱅크스(Robert J. Banks)는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내적 생활 중에서 공동체가 전력해야 할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⁴¹⁾

이처럼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며 유지시키는 최고의 능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 서로를 존중하게 한다. 그리고 친절과 겸손, 이해심과 아량, 그리고 관대한 마음과 낙관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 또한 긍휼과 자비,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사랑은 짐을 나눠지고 서로 돌아보며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것이다.⁴²⁾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 이루어진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였다(행 2:42). 한 가족인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할 때 긍휼과 자비,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된다. 이런 사랑의 흔적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억제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 모든 한 가족인 공동체는 인종과 신분, 성별을 초월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다 하나이다(갈 3:28-29).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성별, 나이별, 혈연과 지연별, 사회적 지위별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가족'이 된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구성원들이 영적 혈연관계를 가진다는 말이며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다.⁴³⁾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실체이며 이러한 영적 혈연관계는

40) 권문상, *부흥 어개인 1907*, 204.

41)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97.

42) 권문상, *부흥 어개인 1907*, 223-224.

43) Ibid., 259.

육신의 가족 관계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즉 성도들은 모두가 가족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인종과 연령과 성별들을 모두 초월한 신성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4.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네 번째 개념은 '성령의 전'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신약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전 12:13). 성령께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내주 하실 뿐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안에 공동으로 내주 해 계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전 3:16)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몸이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한다(엡 2:21-22).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⁴⁴⁾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도들은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인 동시에 성령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벧전 2:4-7).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교통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이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므로,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도록 준비하셨다.⁴⁶⁾ 따라서 교회와 성령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성령은 곧 교회의 발원이고 동력이므로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에 역사하는 능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⁷⁾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⁴⁸⁾

먼저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은 교회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44)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95.

45) Ibid., 95.

46) Randy Frazee,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35.

47) George E. Radd, *신약신학*,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668.

48) 김현진, *공동체 신학*, 41-42.

는 것이다. 오순절 날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 증거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행 1:8; 2:41, 43; 3:7-10; 4:31, 33).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이전에 먼저 각 개인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옛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

둘째,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은 능력과 함께 ‘코이노니아(koinonia)’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13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는 성령의 코이노니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기본 사역은 교통 혹은 교제, 사귀의 ‘코이노니아’이다. 이에 대해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할 만한 영적 교통과 사귀는 성령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서 인간성의 기능을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다.”고 말한다.⁴⁹⁾ 이처럼 성령의 교제케 하는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수평적 코이노니아(행 2:42, 44-45; 4:32; 34-37)를 통해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바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 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셋째,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은 교회를 ‘은사 공동체’(charismatic community)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은사 공동체로서 교회의 의미는 ‘다양성’이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체(organism)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지체들의 제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다.

넷째,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의 목표는 ‘하나 됨(oneness)’이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과 함께 일치의 역사이다.⁵⁰⁾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자신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

49)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99.

50) 바울은 에베소서 4:3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다.

을 앞두고 장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1)”라고 기도하신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응답이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역이다(엡 3:4-5).

5.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다섯 번째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허락하셨다.⁵¹⁾

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교회는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라고 말한다. 래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다.”⁵²⁾ 이에 대해 피터 쿠즈믹(Peter Kuzmic)은 “교회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며, 현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정의한다.⁵³⁾

또한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교회는 화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엡 1:10)-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본질이며 목적이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⁵⁴⁾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나

51) 정태일, “코이노니아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1993년 12월, 72.

52) George E.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93), 305-323.

53) Peter Kuzmic,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명중남 역 (서울: 세순출판사, 1987), 18-19.

54) Howard Snyder,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12-13.

타나는가? 둘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인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고(마 3:2; 막 1:15),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3:1-5),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눅 7:21).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고(시 22:3),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가운데 나타나며(눅 11:20), 또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단순한 믿음(마 18:1-5), 헌신과 충성, 낮아지고, 주고, 버려지는 섬김의 삶(마 19:13-30), 가난한 자와 나누는 공의의 삶(막 10:21-23; 눅 18:22-24), 온전한 사랑의 실천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⁵⁵⁾

한편 성령 강림 이전에는 주로 예수님 한 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졌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능력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 진다.⁵⁶⁾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정녕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현된 실재를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 생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이다. 이것이 교회됨의 의미이다.⁵⁷⁾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가 구현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실천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공동체됨이다.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전한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성이 철저하게 구현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성이 보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한

55) 김현진, *공동체신학*, 44.

56) Ibid., 45-46.

57) Ibid., 46-48.

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the Kingdom of God)’이다.⁵⁸⁾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구성원들이 영적 혈연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령이 기하시는 전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어 갖는 코이노니아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나 인간 조직, 제도나 종교적 단체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의 공동체이다.

제 3 절 교회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공동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원적 의미와 교회의 성경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그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공동체 안에 인간을 두셨기 때문이다. 권문상 교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처럼 ‘공동체적’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⁵⁹⁾

따라서 인간의 공동체적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알아야 한다. 공동체의 원초적인 시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

58) 김현진, *공동체신학*, 48-50.

59) 권문상, *부흥 여객인 1907*, 206.

는 교회가 공동체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적인 속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신학적 기초가 된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한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기에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하나의 신적인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형성하는 신성이다. 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닌 삼위일체의 세 지체들이라는 복수로 이루어진다.⁶⁰⁾

하나님(단수로 묘사된)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복수)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אֱלֹהִי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힘’(אֱ)은 히브리어에서 ‘세 개’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어미로 쓰였다.⁶¹⁾ 이는 곧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행하실 때, 단수가 아닌 복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사역을 행하셨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세기 1:26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와 창세기 11:7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와 같은 구절들 역시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17:22의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8:19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13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2:18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들은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복수성을 말한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언급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하

60)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118.

61) Kay Arthur, *하나님의 이름*, 유윤호 역 (서울: 프리젱트, 1996), 22-23.

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삼신론, 혹은 다신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삼신론이나 다신론은 각각의 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individual)로서의 존재하심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관계적인 인격체(person)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삼위는 부족함이나 결함 때문에 각각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 관계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들이 모두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밝히 보여졌으며,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행위였다.”⁶²⁾ 이에 대해 권문상 교수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유기체적 존재로 계시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 자율적으로 신적인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한다.⁶³⁾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닌 공동체적으로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자유로운 존재이고 독자적 의식을 가지면서 상호 동등하고 상호 존중, 상호 의존, 상호 신뢰하는 분이다. 특히 삼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보여주고 수용하며 지지하고 협력하는 삶을 사신다. 삼위는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 동등하기에 어느 한 신적 인격체가 다른 신적 인격체들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무교류의 삶을 살지 않는다. 서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성자와 성령 없는 성부는 없는 것이고, 성부와 성령 없는 성자도 없으며, 성부와 성자 없는 성령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한 위격의 실존은 다른 위격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⁶⁴⁾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하나님으로 살아가신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비유처럼 유기적인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사신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

62) 최성수, “교회 공동체성의 근거로서의 삼위일체”,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호, 219.

63)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37-241.

64) *Ibid.*, 247.

라고 부른다. 신학자들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행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지체들의 상관성, 동역관계, 상호의존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상호 침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⁶⁵⁾ 권문상 교수는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개념은 삼위 하나님 인격체들이 분명히 독자적으로 실존하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생각과 의지를 사랑 안에서 주고받음으로써 각각의 위격의 생각과 의지가 용납되고 이해되며 나뉘지게 되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각각의 생각과 의지를 상호 주고받음으로써 순환하게 되어 성부의 생각은 이미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의 생각은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의 생각은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⁶⁶⁾

결국 ‘페리코레시스’ 개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독자적으로 실존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의지를 사랑 안에서 주고받으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위격의 생각과 의지가 서로에게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이며, 하나의 생각과 의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종속되거나 서로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완벽한 공동체적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각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이러한 사귀의 관계성 가운데 계시는 ‘관계적인 존재’이다.⁶⁷⁾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마 16:16)이시며,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이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운동력과 생명,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 고립되고 독립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65)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120-121.

66)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1.

67)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8), 19.

관계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인격은 관계적인 실체로서 상호주체성, 공유된 의식, 신실한 관계, 서로 주고받는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진다.⁶⁸⁾

2.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를 의미한다. 성령의 본격적인 코이노니아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삼위 하나님간의 교제는 창세전부터 존재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는 협의체로서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창조 사역 시, 인간을 지으실 때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창조하셨다(창 1:1-2, 26). 특히 구원 사역 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엡 1:4-6),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피 흘려 구속 하셔서 죄 사함을 주셨고(엡 1:7),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엡 1:13-14).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⁶⁹⁾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코이노니아(koinonia) 가운데 있는 인격들의 신비로서 존재 하신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며, 참된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는 인격체들은 행복, 희망, 고통, 책임을 함께 한다. 이에 대해 존 맥아더(J. MacArther)는 “코이노니아란 함께 공동생활 하는 것으로서, 함께 모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다.⁷⁰⁾ 이와 같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신적 인격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신다.⁷¹⁾

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코이노니아로 발전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셨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다.⁷²⁾

68)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10-112.

69) 오정현, “창조력 있는 사역은 탐 사역에서 나온다”, *목회와 신학*, 1995년 9월호, 61.

70) John MacArther,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80.

71)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274-275.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모본이며, 특히 교회 공동체의 관계의 원형과 모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그러한 공동체적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교회도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⁷²⁾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푸신 사람들로 구성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유지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코이노니아이다.

현재의 한국 교회는 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상호 사귄과 동등과 섬김과 복종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3.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공동체 교회의 또 다른 신학적 근거는 교회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적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인간이 구성하는 공동체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26-27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72) 김현진, *공동체 신학*, 5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73) Donald Mu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80.

를 창조하시고”라는 인간 창조기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 즉 부부라는 복수의 공동체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위이면서 페리코레스틱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셨듯이 인간 역시도 복수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페리코레스틱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독처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시며 부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신다. 이는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과 더불어 사람 형상의 공허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⁷⁴⁾

공동체 교회의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공허감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담은 진정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공허감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하고 깊이 있는 신뢰 관계를 나눔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인간의 창조기사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이며 공동체적 존재임을 증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닌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리의 공동체적 존재인 것이다. 특히 인간이 남자와 여자, 즉 부부라는 형식의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스틱 공동체성이 간접적으로 계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문상 교수는 인간이 부부라는 복수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간접적으로 계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삶이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라 할, 그분의 공동체적 특성을 발견

74) Andy Stanley,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종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30-31.

하게 되는 것이다.⁷⁵⁾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상대방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통을 호혜적으로 나눔으로써, 혹은 상호 간에 침투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⁷⁶⁾ 이는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공동체의 본질적 모습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실제적인 사귀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개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서로 연합하여 본질적인 인간됨을 이루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인간과 사귀를 갖기 원하셨다. 그래서 태초부터 신적 공동체는 인간 공동체와 더불어 상호 공동체로 존재했다.⁷⁷⁾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사랑 안에서 상호 의존하며, 돕고, 교통하는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지배구조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 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락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온전한 일치와 조화된 관계 대신 끔찍한 반대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성되는 위계구조였다. ... 하나 됨 대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원리가 도입되었고 이 자체가 타락의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⁷⁸⁾

타락 이후 인간은 상호 이해, 상호 의존, 상호 신뢰, 상호 인정의 온전한 관계보다는 자기만족과 욕심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의 파괴는 한 몸으로 창조된 평등한 부부의 관계를 위계적 부부의 관계로 변

75) 권문상,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개혁신학*, 2005년 18집, 212.

76) *Ibid.*, 222.

77)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44.

78)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31.

질시켰고, 가족과 친족, 사회, 국가의 모든 공동체적 관계를 변질시켰다.⁷⁹⁾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된 인간의 공동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옛 공동체의 잔해로부터 새 공동체를 창출하실 계획을 실행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공동체를 삼으셨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파괴되었다. 지속적인 공동체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 구원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다. 바로 그 열매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로 나타났고, 또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⁸⁰⁾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새롭게 된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 상호 간의 교제,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누리는 구속받은 백성의 수립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⁸¹⁾ 따라서 교회는 타락 이후 훼손된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돕는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성의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신학적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며 인간 또한 공동체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

79) 권문상, *부흥 여객인 1907*, 210.

80) Ibid., 214-215.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를 염원하셨는데, 이는 동시에 인류를 공동체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하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는 기도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주요한 목적임을 밝히셨다.

81)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188.

는 제도나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존재방식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기능의 권위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어떤 기관이나 조직들과도 다르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현실화시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⁸²⁾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2장에서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어원적 의미와 교회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그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공동체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살펴본 이유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성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본 연구자는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소그룹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82)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280, 287.

제 3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소그룹

앞 장에서 우리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임을 살펴보았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역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역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소그룹 사역을 요청하게 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와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

교회의 건강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현대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공동체성의 상실의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큰 조류인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내부로 여과 없이 들어와 교회의 근본을 흔들며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교회 안팎의 원인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공동체 개념의 희석화

현대 교회의 공동체 개념을 희석화시킨 주범은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⁸³⁾ 김영한은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제시한다.⁸⁴⁾

첫째, 기존의 전통과 인습과의 극단적인 단절을 이루는 탈정전화(脫正典化). 둘째, 애매모호성, 불연속성, 탈창조, 탈중심, 임의성, 반항, 변형, 분산, 붕괴, 해체 등으로 확실성과 결정성을 거부하는 비결정성과 불확실성. 셋째, 인간의 주체성,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주체성 상실과 자아분해. 넷째, 모든 사람의 의식과 독특성과 개별성이 사라지고 불확실한 일련의 해체 성향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보편내재성. 다섯째, 총체성, 전체와의 조화, 통합과 종합을 거부하는 파편화(破片化). 여섯째, 문학과 철학의 한계, 문학의 장르의 한계도 무너지는 탈장르화와 이종문화(異種文化). 일곱째, 억압적인 것, 주변적인 것의 복귀. 여덟째, 행위와 참여의 주입. 아홉째, 예술과 실생활을 연결시키고자하는 대중문화주의.

이런 특징은 필연적으로 이 사상체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영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한다.⁸⁵⁾ 첫째, 전통과 규범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단절해 전통적 가치와 규범의 해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가치와 규범의 혼돈을 야기한다. 둘째, 객관적 지식과 도덕을 극단적으로 회의하고 지식과 윤리의 애매 모호성, 붕괴, 임의, 탈 중심, 불연속성을 선언함으로써 진리와 윤리의 상대주의와 허무주의가 대두한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의 존엄성을 부정한다. 넷째, 사회의식과 정신의 단절, 혼돈, 해체와 분해로 인한 사회의 통전성(通典性)이 붕괴된다. 다섯째, 문화의 퇴행과 퇴폐이다.

83) 박영철, 셀교회론, 157.

84) 김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와 신학, 1992년 8월, 81.

85) Ibid., 93-96.

이와 같이 현대 한국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전에 없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의식,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한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함께 모여 관계를 맺기 보다는 점점 홀로 지내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⁸⁶⁾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부너졌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성과 인격의 상호성은 약해지고 소외와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해온 어떤 사상이나 가치체계들보다도 부정적이고 심각한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붕괴의 위험성을 가져다주고 있다.⁸⁷⁾

2. 현대 사회의 심리적 특징

한편 현대 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종교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윌리엄 이섬(William M. Easum)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종교성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⁸⁸⁾

첫째, 교회는 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원한다.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 자체의 생존에 관심을 집중하는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종교적 영성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교회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다.

둘째, 도덕적 방황 속에서 용서와 확신을 원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도덕적 상대주의 속에 살고 있다. 이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는 절대가치를 찾을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용서와 확신을 종교를 통해 인기를 희망한다.⁸⁹⁾

86) 이원설,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 (대전: 한남대학교, 1990), 123.

87)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 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266-267.

88) William M. Easum, *교회성장 핸드북*,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5.

셋째, 율법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명령과 지시 받기를 싫어한다.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일반화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사역은 명령과 지시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율법이 주는 영적, 감성적, 육신적, 사회적 유익성을 바르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와 자기 신앙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다. 현시대는 즉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대이므로 과거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을 꺼려한다.

다섯째,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질문이 많다. 현대는 개인의 생각이 폭넓게 반영되고 보호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획일주의적인 대답보다는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대답을 원한다. 따라서 교회는 현대인들의 영적 질문에 대해서 진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종교의 진리성 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유익성을 강조한다. 과거는 종교에 대한 진리를 찾아 가는 것이 영성 생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선택한 종교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다.

이처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종교성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교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만족보다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상처와 갈등을 치료하며,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더욱 높다. 또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 받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현시대는 관계를 갈망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는 진실 된 관계이다.⁹⁰⁾

89) 이에 대해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1세기에는 사람들이 "물질과 과학 만능 세계를 대변하는 과거 산업 사회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신성하고 영적인 세계를 찾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적 열광 현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종교에 대한 열광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1992). 142.

90) Andy Stanley,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24.

3.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는 한국 교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감당해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보이는 세상에 참된 공동체란 이런 곳이라고 당당히 우리의 교회를 내보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초대교회 같은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는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공동체, 온 세상과 이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이 고안하신 공동체로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공동체, 서로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이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교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교회, 죄 용서의 감격과 재미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배움을 위한 자료들이 있는 교회, 막대한 돈과 능수능란한 말솜씨나 통제와 조종이 필요 없는 교회, 능력 있고 은사 충만한 '영웅'들이 없어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람들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여 전율케 하고 엄청난 기쁨과 경이감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교회, 우리에게 삶의 길을 단순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교회이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적인 사명을 다할 때 되어 질 수 있다.⁹¹⁾

따라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교회의 참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승구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⁹²⁾ 첫째, 성경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육 이원론이 한국 교회에 고착되었으며 그로인해 성숙 이원론적 사고가 성도의 삶 속에 드리난다. 둘째, 개교회주의가 강화되었다. 셋째, 목사직 세습이 교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넷째, 교회 재정의 비합리적 사용과 불투명의 문제이다. 다섯째, 물질과 부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의 등장이다. 여섯째, 교회 내의 바르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일곱째, 교회 안에서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편중되어있

91)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3.

92)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289-290.

는 문제이다. 여덟째, 사회 전반과 문화 일반에 대해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성을 상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대교회처럼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들

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 교회의 주목이 될 만큼 성도의 수가 증가되었고, 높은 집회율, 기도의 열심의 긍정적 측면의 성장도 이루었다.⁹³⁾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달려온 만큼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 현장과 학계에서 교회의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들은 복음을 상실한 교회,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 다양한 이념의 갈등, 신학과 신앙의 괴리, 교회의 도덕성 해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많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체성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종류이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갈등과 분쟁은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초대교회의 분열과 갈등, 서구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이 사실을 잘 대변 해 준다.⁹⁴⁾ 따

93) 김중기, *현대사회와 목회실계*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학술 자료원, 1989), 148.

94) 권문상, *부흥 어계인 1907*, 35-44.

라서 한국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반목과 질서, 비타협, 냉소주의, 성도들의 세력 다툼, 교회 재산을 둘러싼 알력, 목사와 평신도간의 분열, 평신도와 평신도간의 분열, 교회간의 분열 등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서구 교회가 겪었던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 해결 방법과는 달리 한국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독특한 면이 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극단적인 교회 분열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즉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은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폐쇄적 가족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권위주의와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⁹⁵⁾

한국인의 심성을 오랜 시간 지배해 온 것은 한국 무속신앙이었다. 무당종교는 현실성, 의존성, 기복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 무교는 의타성, 보수성, 현실성, 오락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무교적 특징들은 한국 교회의 특징적 요소로 흡수되어 한국 교회의 비판의 요소가 되었다. 결국 무당종교의 특징은 한국 교회가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게 하였고, 기복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하였다.⁹⁶⁾

또한 한국 교회는 무속신앙에 의한 병리현상에 더하여 유교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 유교는 효(孝) 사상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고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가부장적 위계 구도로 규정한다. 유교는 가족 중심적 세계관을 체계화, 규범화하여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들었고, 이러한 생각을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내 가족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폐쇄적 가족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위계 문화, 서열 문화, 학벌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의 폐쇄적 가족주의

95)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66. 권문상 교수는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인 우리라는 개념은 가족같은 집단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그들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 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 대화와 토론의 부재를 가져온 선후배 문화, 자율성과 평등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열문화, 비합리적인 연출 문화 등을 양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96)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54-55.

는 권위주의적 수직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반공동체적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다. 그 결과 유교가 만들어낸 폐쇄적 공동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그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폐쇄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배타적 이익 집단이다.⁹⁷⁾

이처럼 우리 민족은 종교적으로는 현세주의적인 샤머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 성향인 비합리적인 이기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에 만연해 있다. 이런 세계관에 근거해서 사회, 집단, 회사, 교회를 이룬다. 따라서 권문상 교수는 “이런 유교 문화는 그대로 한국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겪을 때마다 성경적인 공동체 정신은 간 곳 없고 폐쇄적 가족주의와 장유유서라는 서열 문화정신이 고개를 쳐들게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자기중심적 사고, 이에 따른 토론의 부재, 대화 소통의 난항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⁹⁸⁾

결국 이런 샤머니즘과 유교적 권위 문화는 현세주의적 세계관, 실용주의적 세계관, 가족 이기주의적 성격, 운명론적 인간관, 윤리의식의 부재, 기복주의와 거기에서 비롯된 물질 만능주의, 목적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그리고 가족 중심적 집단 이기주의, 서열문화, 획일주의, 학벌주의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⁹⁹⁾

2. 물량적 성공주의

그 동안 한국 교회는 1960년대 이후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잇달아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속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회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과정과 맞물려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는 비대해졌으나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상업주의와 물량적 사고가 팽배하여 점차 교회 내에서도 세속적 가치에 의

97) 권문상, *부흥, 어캐인 1907*, 123, 149-151.

98) *Ibid.*, 67.

99) *Ibid.*, 75-100.

한 성공주의가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¹⁰⁰⁾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그 동안 교회성장의 척도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두어 왔다. 교회의 건물이 어떠하며, 교인수가 얼마이며, 매주일 헌금이 얼마이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가 교회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 버렸다.¹⁰¹⁾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성장을 빌미로 더 나은 건물, 더 좋은 부대시설 확충, 기도원과 동산 등 교회의 외적 성장에 예산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그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해 왔던 ‘성장주의 신화’는 한국 교회 내에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왔다. 교회의 물량적 성공주의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여지없이 부너뜨리고 있다. 교회성장주의는 교회의 대형화로 성도간의 거룩한 교제는 매우 국지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교회의 생활이 질보다는 수와 양에 치중하여 교세 확장, 건물확대, 재정확대에 여념이 없게 되자, 성도의 교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결국 교회가 성도간의 코이노니아 장이라는 사고보다는 교회가 교육기관, 선교단체, 봉사단체나 그러한 기관이라는 사고가 더 팽배해졌다.¹⁰²⁾

이처럼 교회의 물량적 성공주의는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로 형제가 아닌 경쟁자요 적대자로 세운다. 성장이란 목표가 그 내적인 면보다도 외적인 면에 치우칠 때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심각한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수직적 목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도 상호간의 수평적 목표를 간과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 상호간의 관계성은 처음부터 도외시 된다.¹⁰³⁾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을 외면할 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장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100) 문석호, “한국 교회와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종신대 논총*, 1997년, 77.

101) 김병서, *한국 사회와 개신교-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64.

102)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1998년 5월, 15.

103)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75-81. 이에 대해 스나이더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비기동성’, ‘비융통성’, ‘교제의 부재’, ‘교만’, ‘계층의 구분’ 등 다섯 가지로 든다. 그리고 교회성장을 대표하는 건물을 그 증거로 들면서 “교회의 의식과 유별성을 사회에 말해 주는 하나의 표식”이라고 말한다.

3.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란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을 말한다.¹⁰⁴⁾ 이런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개 교회의 자치, 자전, 자립을 동시에 강조하는 실질적인 물질적 자립을 지나치게 강조한 네비우스 선교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와 같은 교회정책은 개교회 차원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강제하였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현상을 낳았다. 개교회의 재정적 자립이 교회성장의 목적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의 연속선상에서 개교회가 교회들의 공동체적인 총회나 연회나 지방회 등의 통제권 밖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개교회의 물량적 성공이 가시화된 시점이다.¹⁰⁵⁾

노치준은 이와 같은 개교회주의가 깊게 뿌리박는데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¹⁰⁶⁾ 첫째, 자기 교회 지향적인 성향이 다분함으로 개교회주의를 만드는데 적극 함께 했다. 둘째, 보수적, 경건주의적, 개인주의적, 말세적, 기복적인 믿음의 체계가 개교회주의에 영향을 깊이 주었다. 셋째, 전통적이 유교문화인 가족주의적 태도도 한 몫을 했다. 넷째,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공명심 또한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현대사회연구소의 조사보고서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⁰⁷⁾

한국 개신교는 교회 지상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지향하고 있고, 교회생활은 다시 초월 지향적으로 수렴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교회주의적 태도는 개교회 중심적인 풍토를 지냄으로써 기독교 전체의 유기적 통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04) 노치준, “한국 교회와 개교회주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상*, 1986년 5월, 81.

105)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 18.

106) 노치준, “한국 교회와 개교회주의에 관한 연구”, 86-88.

107) 김종기 외, *한국 교회 성장과 신앙양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2), 185.

이처럼 개교회주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각의 교회를 존속시켜온 강한 힘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지킨다는 순수한 헌신과 내면적 열정을 갖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반면 개교회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빠져들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들, 그리고 개교회주의에 빠져 교회간의 연합과 단결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리의 보편성을 드러내야 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상실하도록 만든다.¹⁰⁸⁾ 결국 개교회주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의 상실로 선교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왜곡하고 무너뜨린다.

4. 목회구조

현대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목회구조는 목회기능이 집단목회 기능인 설교와 예배가 목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목회구조에 집단목회 기능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교인들의 삶과 윤리,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¹⁰⁹⁾

이기춘은 이러한 설교 중심의 집단적 목회의 기능은 교회의 양적 팽창과 구조의 대형화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인간의 무의식적 풍토까지 얻을 수 있는 공동체적 변화는 초래할 수 없다고 말한다.¹¹⁰⁾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구조와 방향은 설교와 예배 위주의 집단목회 기능과 소그룹 관계 중심의 목회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성을 회복한 교회이다. 교회에서 믿음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을 체험한 성도들이 물질만능의

108) 문석호, *한국 교회와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82.

109)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144. 이기춘은 “이러한 설교와 예배의 집단 목회기능의 독주는 목회의 방향을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 교회의 에너지와 활력소가 세계 속의 인간을 교회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110) 이기춘, “한국 교회 목회구조 갱신의 방향”, *신학과 세계*, 1982, 516.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로 회복됨에 있어서 소그룹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3 절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21세기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성도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교회 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더욱 인격적인 공동체를 제공해야 하고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 구성원들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를 통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교회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이 가능하기에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교회적 차원에서의 대안이 소그룹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소그룹의 정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소그룹에 속해 있는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소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간다. 그러나 실상 소그룹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그룹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그룹이라고 말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 조지(Carl F. George)는 소그룹에 대하여 “모든 교제의 기본 단위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임”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한다.¹¹¹⁾ 이에 대해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이란 서로의 발전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나누는 작은 규모(3-20명)의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본다.¹¹²⁾

한편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과 프랭크 존슨(Frank Johnson)은 “소그룹이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며 그룹의 소속원으로서 그 자신을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 규정받으며 공통 흥미에 대한 규범을 나누고 또한 짜 맞추어진 역할 체계에 참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그룹 속에서 보상을 발견하고 공통 목적을 추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로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¹¹³⁾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자발적이며 계획적인 모임으로서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3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구성원들은 그룹의 성공과 상호간의 교제와 성숙을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정의한다.¹¹⁴⁾ 이에 대해 하워드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그룹은 교회내의 새로움을 위한 은사의 발견과 사용에 대한 최대의 희망을 제공하여 준다. 대그룹인 예배 중심의 회중생활의 새로운 구조인 소그룹은 인간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기기만과 불신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에 대하여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¹⁵⁾

또한 정웅섭은 “소그룹이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제를 이루려고 모인 몇 사람의 인원으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그 안에서 각 멤버는 어떤 사회적 규범에

111)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28.

112)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40.

113) David Johnson, Frank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 7.

114)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7), 10.

115)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52-53.

따라 행동하고 인간적인 느낌과 태도에 의해 영향 받으면서 밖의 사람들보다는 멤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과제를 풀어 나가게 된다”고 말한다.¹¹⁶⁾ 그리고 옥한흠은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고 말한다.¹¹⁷⁾

이상과 같은 소그룹의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 소그룹은 같은 환경, 같은 목적, 같은 감정, 상호 작용, 적당한 수 등이 일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그룹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모인 3-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모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지지해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나눔과 섬김, 기도와 친교, 치유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소그룹은 교회를 이루는 기초이다. 따라서 소그룹을 회복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열쇠가 소그룹의 회복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별히 요즘 대형화 되는 교회 추세를 볼 때 건강한 소그룹에 기반을 두고 있기 보다는 대형 집회나 대중의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¹¹⁸⁾ 따라서 건강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가. 소그룹의 장점

그렇다면 소그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사역인 것인가?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현대 사회구조에서 갖는 소그룹의 실제적인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¹¹⁹⁾ 첫째, 유연

116)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980년 6월호, 15.

11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39.

118)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5.

119)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68-169.

성이 있다. 장소, 시간, 횟수, 규모에 융통성이 있다. 둘째, 유동성이 있다. 가정 뿐 아니라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나 가능하다. 셋째, 포괄적이다. 사회 신분,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넷째, 인격적이다.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전도의 수단이 된다. 일곱째, 최소한의 전문적 지도력만 있으면 그룹을 이끌 수 있다. 여덟째, 제도화된 교회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스나이더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소외와 고립, 차별과 갈등의 시대 상황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물들어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민은 소그룹의 장점을 “소그룹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랑을 배우게 되며, 치유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봉사와 섬김을 훈련받게 되어,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한다.¹²⁰⁾

나. 소그룹의 필요성

이처럼 소그룹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소그룹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목회전략이며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친밀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성경적인 공동생활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함과 연대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 친밀해져서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점검해 주며 함께 성장함으로 공동체적 삶이 풍성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¹²¹⁾ 소그룹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교회 사역에 있어 소그룹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회중이 같은 장소와 시간을

120) 김영민, “소그룹의 네 가지 유익”, *디사이플*, 2004년 10월호, 28-31.

121)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66-67.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소그룹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세워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 보이는 소그룹을 통해 공애배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옥한흠은 소그룹이 교회 사역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소그룹은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으며, 평신도의 자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보호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주고, 진 교회가 상호 작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교역자 중심체계의 목회구조를 평신도 중심체계로 바꿀 수 있고, 사역을 분담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¹²²⁾

셋째, 평신도 지도력 개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며, 순종과 인격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사역의 질은 지도자의 질에 비례한다”¹²³⁾고 말한다. 이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각각의 지체들이 상호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역해야 한다. 모든 지체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경험되는 것과 같은 하나 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체들 개인의 삶이 변화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함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 사역은 모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최종적인 현장이다.¹²⁴⁾

넷째, 소외됨이 없는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목회적 돌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리더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예비리더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곳,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과 돌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목회적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더

12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0-180.

123)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연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7), 28.

124) Bill Donahue,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관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8), 74.

육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¹²⁵⁾ 맥아더(John MacArthur)는 복회적 돌봄의 영역에 포함해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¹²⁶⁾ 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②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일이다. ③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상담하는 일이다. ④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훈계하고 충고하는 일이다.

3.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

그렇다면 소그룹이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소그룹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한다. 소그룹이 갖는 역할에 대해 명성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¹²⁷⁾ 첫째, 소그룹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를 닮아가는 것이 소그룹의 첫 번째 역할이다. 둘째, 삶의 변화이다. 소그룹은 역동성을 지닌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리더십의 재발전이다. 소그룹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세움으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한다. 넷째, 소그룹은 건강한 성장과 증식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소그룹은 작은 기초 생명체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포분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증식되어야 한다. 소그룹의 성장과 증식은 제도가 아니라 교회 활동의 기본 법칙인 것이다. 다섯째,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긴밀한 영적 체험을 통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일하신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이 교통하신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은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성령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육한흠 목사는 소그룹이 가지는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다섯 가지를 언급한다. 일반화의 요소, 인격 상호간의 학습, 모방의 요소, 그룹 애착심, 그리고 카타르시스의 효과다. 이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서 치료 요소라고 정의한다.¹²⁸⁾

125) Andy Stanley,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5-96.

126) John MacArthur, *양무리모임론*, 장의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 출판부, 1987), 75.

127) 명성훈, *부흥뱅크* (서울: 규장문화사, 1999), 293-294.

128)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42-249.

이에 대해 맥아더(John MacArthur)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가진 기능을 그의 'FLOCKS'¹²⁹⁾ 이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¹³⁰⁾ 첫째, 교제(Fellowship)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과도 동일한 것이며 교회의 본질로서의 교제(코이노니아)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지도력 개발(Leadership)이다.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구조를 추구하는 이유는 모든 교인 가자를 지도자로, 사역자로 개발하는데 있다. 셋째, 전도(Outreach)이다. 소그룹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이 사용하는 전도 전략 중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과 독특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 대상자에 대한 소집단 접근이라는 점이다. 넷째, 돌봄(Caring)이다. 다섯째, 성경공부(Knowledge)이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룹 다이내믹스가 성경공부를 적절히 활용되어지게 하는데 있다. 여섯째, 봉사(Salt)이다. 소그룹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은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훌륭한 소그룹 활동의 네 가지 요소를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라고 정의한다.¹³¹⁾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그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권문상 교수는 소그룹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로 인간은 소속감을 원하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좋아하지 않는데 소그룹은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열망을 충족시켜 준다. 둘째로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로 목사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소그룹 리더들이 그 일을 대신함으로써 목사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¹³²⁾

지금까지 3장에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에 대해

129) FLOCKS란 '양떼'로서 소그룹의 기능을 기억하기 쉽게 영어의 단어 첫 글자를 합성시킨 것으로서 'Fellowship, Leadership, Outreach, Caring, Knowledge, Salt'이다. John MacArthur, *양무리모임론*

130) 박영철, "가정 셀 그룹 교회에서의 셀 그룹 구조와 기능", *복음과 실천*, 2004년, 153-165.

131) Ron Nicholas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규 역 (서울: IVP, 2005), 27-32.

132) 권문상, *부흥 이계인 1907*, 282-283.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소그룹 사역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소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소그룹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와 같은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와 소그룹의 관계는 편의상 형성된 관계가 아니다. 본질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소그룹 중심이어야 하고 소그룹은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며 생명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음 4장에서는 이런 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영석교회에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

지금까지 3장에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석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현재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영석교회의 역사와 그 동안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사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해 본다. 이어서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시도한 영석교회의 사역의 변화들을 예배, 훈련과 양육, 전도, 교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 영석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 형태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해 볼 것이다.

제 1 절 지역사회 이해

교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따로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석교회가 속한 서울 동작구 흑석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영석교회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해 있다. 동작구는 행정구역상 상도동, 사당동, 흑석동, 노량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416,268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¹³³⁾. 흑석동은 동쪽으로 능선을 경계로 국립묘지가 있는 동작동과 연하여 있고, 서쪽은 능선을 경계로 본

133) 동작구, “통계로 보는 동작”, Online: <http://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20800>

동(本洞)과 인접해 있다. 남쪽은 능선을 따라 상도동과 나누어지고 북쪽은 한강에 닿아 있는 지역이다. 흑석동¹³⁴⁾은 2014년 10월 현재 구(舊) 흑석 1, 2, 3동을 합하여 3.92km 면적에 15,948세대 38,86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흑석동은 최근까지도 제재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질 만큼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舊) 흑석 3동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산동네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舊) 흑석 1동에는 고학력, 고수입의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같은 흑석동 지역 주민이라 해도 학력과 수입, 생활수준이 현격한 차이로 구분되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특히 흑석동 지역에는 교회를 포함하여 성당, 사찰, 기타 종교 기관이 46개나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 사찰은 5개 이상이 있어 그 세력이 상당하다. 구(舊) 흑석1동 서달산 북쪽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의 비구니 사찰인 달마사는 1931년에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는 대표적인 흑석동 지역의 사찰이다. 1945년에 창건된 보덕사, 미타사, 법륜사, 미륵암 등이 있어서 서울시에 보통 한 동에 1개가 있을 사찰이 흑석동과 주변에 10여개가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흑석동 현충로 앞에 원불교 회관과 함께 원불교 라디오 방송국인 원음방송이 자리 잡고 그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흑석동 지역의 영적 지도에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단종교집단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석동과 이웃하고 있는 사당동과 신림동 지역에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어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흑석동의 이단 종교 및 사이비 집단의 내용을 보면, 먼저 통일교 집단이 전통적인 교회와 구별을 할 수 없도록 ‘흑석가정교회’ 라는 이름으로 흑석동에 침투해 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의 ‘흑석동교회’가 있고, ‘동작상승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은 지역사회 문화회관인 듯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묘호랑갱교라는 이단종교집단의 집회처이자 포교원이다. 그리고 역술원과 점집, 부속인집이 10여 곳 이상이 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단 사이비집단의 침투가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중앙대학교 내 교목실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독교 동아리 외에 이단들의 동아리 활동이 최근 활발해

134) 흑석동의 동명(洞名)은 구(舊) 흑석1동 사무소 남쪽 일대에서 나오는 돌의 빛이 검은 색을 띠므로 ‘검은돌(黑石)’ 마을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동작구지(銅雀區誌)* (서울: 동작구 발행, 1994), 148. 흑석 1, 2, 3동의 행정구역은 2008년 2월 1일부터 흑석동으로 통합되었다.

지고 있어서 이에 기독교 동아리들과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흑석동은 교육촌(敎育村)이라고 할 만큼 작은 지역 안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흑석동 내에 가장 큰 규모의 교육기관으로 14,000여 명의 중앙대학교가 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흑석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중학교와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등 2개의 중학교가 있다.

흑석동 전체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20대 이하의 사람들이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 인구 중에서 3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20대 청년층이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매일 중앙대학교에 등하교하는 14,000여 명의 학생들을 고려하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영석교회의 지역 상황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특히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흑석동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의 필요를 교회가 파악하여 채워주면서 다양한 접촉점을 통한 복음 전도에 진력함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표 1> 흑석동 지역주민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 상황¹³⁵⁾

연 령	남	여	합 계
0세 - 9세	1,304	1,258	2,562
10세 - 19세	1,629	1,587	3,216
20세 - 29세	3,124	2,779	5,903
30세 - 39세	3,101	2,915	6,016
40세 - 49세	2,978	2,872	5,850
50세 - 59세	2,722	2,952	5,674
60세 - 69세	1,705	2,111	3,816
70세 - 79세	1,158	1,448	2,606
80세 - 89세	296	608	904
90세 - 99세	48	106	154
100세 - 109세	9	18	27
110세 이상	2	5	7
합 계	18,076	18,659	36,735

135) 동작구, “통계로 보는 동작”, Online: <http://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20800>

또한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30대 인구가 흑석동 전체 인구에서 6,0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0대 젊은 주부층은 공통적으로 유치원에 가기 전의 2-4세 유아들에 대한 교육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길러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또한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쉽게 찾아오는 우울증 등으로부터 탈출구가 필요한 세대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아픔과 필요를 느끼는 이들이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제공되고, 유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어머니와 아기의 놀이의 문화만 접하더라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뉴타운 조성과 재발이 확정, 발표되면서 흑석동 전 지역에 걸쳐 진출, 전입이 늘고 환경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도로가 확장되고 도심과 연결되는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이동이 대폭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는 이러한 지역 내 인구의 유입과 흐름을 선용하여 다양한 섬김과 봉사, 선교의 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제 2 절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

이상에서 영석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현재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영석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동안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해 본다. 이어서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시도한 영석교회의 사역의 변화들을 예배, 훈련과 양육, 전도, 교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영석교회의 역사

영석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서울 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올해로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년 교회이다. 영석교회는 1969년 3월 인근에 있는 명수

대교회에서 분리 되어 나온 약 50명의 성도들이 흑석동 중앙대학교 내에 있는 중대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서 시작되었다. 명수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분리되어 나오게 된 이유는 명수대교회를 담임하시던 계효연 목사의 위임을 교회 측에서 오랫동안 미루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실망한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계효연 목사는 개척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자 중대교회 교목으로 시무하시던 허민구 목사가 임시로 강단을 맡아 사역하였다. 그러나 중대교회 측과 교단 가입 문제로 갈등이 일게 되자 립인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모시고 1973년 5월에 현 노회인 서울 남노회에 가입하였는데 이 때 교회 이름을 영석교회로 명명하였다. 그 이후 중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예배처소를 옮겨 다녀야 했는데 그 과정 중에도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하여 교세는 약 3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1974년 12월에 임민규 장로가 흑석동 111-2번지에 위치한 현 교회 대지 175평을 헌납하여 1975년 10월에 연건평 237평의 교회당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영석교회는 두 분의 훌륭한 목회자(홍영의 목사, 박송학 목사)가 담임으로 목회를 하였고 본 연구자는 2011년 1월에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교회 상황은 성장은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침체가 교회 전반에 머물러 있었다. 부임 당시 주일 출석 교인 수는 청년을 포함한 장년이 90여 명, 중고등부가 20여 명, 아동부가 10여 명 정도였다. 그리고 유치부는 따로 조직이 되지 않고 아동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 창립 45년의 역사를 목전에 둔 지역교회임을 고려할 때, 특히 중앙대학교라는 황금어장이 근접하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실은 지역사회에 영석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짐작 할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주소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그 동안 영석교회는 교회의 이리저리한 알력으로 여러 가정의 교회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영석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성을 갖지 못하여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있었다. 그러던 중 본 연구자는 2011년 1월에 부임한 이후 새롭게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현재 주일 출석 교인 수는 청년을 포함하여 장년이 180여 명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다.

2. 영석교회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영석교회는 1969년에 창립되어 올 해로 교회 창립 46년을 맞는 중년 교회이다.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초창기 교회가 설립될 당시의 주역들과 그들의 가족들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교회를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46년이라는 교회의 연륜과 함께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그룹들도 더불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접어든 전형적인 형태의 전통 교회이다. 현재 영석교회 등록교인의 연령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석교회 교인 분포도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30명	30명	25명	40명	35명	40명
15%	15%	13%	20%	18%	20%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50대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대 이하로 갈수록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영석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년층이 많고 젊은 층이 적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젊은 세신자들이 노령화된 교회 속에서 또래 집단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의 영화만을 바라보며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석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소박함과 따뜻한 정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한편 영석교회는 창립 때부터 설교와 예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전통적인 교

회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지내왔었다. 현 원로목사 은퇴 후에 본 연구자가 2011년에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점차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내려오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성향처럼 교인들 역시 보수적이며, 연령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기존에 내려오던 방식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꺼리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영석교회의 사역의 문제점과 평가

기존의 전통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다. 사실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먼저 사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목회 리더십의 부재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이전의 영석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사역과 조직 보다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구조, 당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사 개선, 사역 참여 등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성도들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는 결코 공동체성을 회복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특히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고, 목회 비전의 공유나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공동체 의식이나 지체의식이 생길 수 없고, 이는 결국 목회자에 대한 신뢰 부족과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에도 영석교회가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석교회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려면 무엇

보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갖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리더십에 대한 완전한 모델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¹³⁶⁾ 이 말씀은 기독교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리 ‘섬기는 자’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은 “열린 귀와 열린 눈 즉 비전을 갖는 것이며 또한 열린 입 즉 진리를 스토리 속에서 담아 전달하는 능력이며 권함을 위임하는 열린 손을 갖는 것이다”고 말한다.¹³⁷⁾ 이처럼 오늘날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영적 리더십에 기초한 섬김의 리더십이다.

나. 예배의 감격 부재

예배란 ‘무엇을 최고로 여긴다’,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¹³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¹³⁹⁾ 예배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다.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한다.

따라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야 한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다. 예배

13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3-45)

137)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62-263. 일부에서는 목회 리더십을 운동 코치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코치가 하는 일은 주로 선수 발굴, 훈련 전략 세우기, 게임 운영, 승부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 필드에 나타나지 아니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코치형 리더십이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138) Ibid., 105.

139)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83-89.

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야만 교회의 각 부분에 새로운 피가 전달되어 생명력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까지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열매를 가져올 수 있고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교회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나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일 오전예배에 대한 참여도도 낮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다른 공적 예배는 너무도 미약한 실정이었다.

다. 양육과 훈련의 부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돌보는 것을 양육 혹은 훈련이라 한다.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¹⁴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골고루 성장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성도를 온전케 함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이해 대해 옥한흠 목사는 훈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세우는데 있는 것이다.”¹⁴¹⁾

김성곤 목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한데 건강한 교회의 한 날개는 대그룹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고 말한다.¹⁴²⁾ 그런데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대그룹 모임인 예배는 물론 소그룹도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었다. 새신자를 위한 교육도, 기존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14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12.

141) Ibid., 191-192. 옥한흠 목사는 훈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세우는데 있는 것이다.”

142)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7), 15.

위한 양육도, 평신도를 동역자로 삼아 함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도 미비한 상태였다.

이상에서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 동안의 사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석교회는 전통교회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40여 년 동안을 지내왔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성향처럼 교인들 역시 보수적이며, 연령도 고령화가 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영석교회는 전통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구조, 당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고, 목회 비전의 공유나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지체의식이 생길 수 없고, 결국 목회자에 대한 신뢰 부족과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목회 리더십의 부재는 자연히 예배의 감격 부재, 양육과 훈련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석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지녀야 할 공동체성이 많이 결여되어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4.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역의 변화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이처럼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체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시도한 영석교회의 사역의 변화들을 예배, 훈련과 양육, 전도, 교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 예배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배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영감있는 예배’가 드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교회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육대주의 천 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교회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과연 성도들에게 영감 있는 예배인가? 라는 점이다”라고 말하였다.¹⁴³⁾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였다.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종합 연주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은 참여자라기보다는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예배 순서의 특징은 기존의 예배 순서에 비해 말씀,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단순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찬양 순서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존의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따라 경건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자는 찬양을 예배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밋밋해 질 수 있는 예배에 뜨거운 찬양을 들여옴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게 하였다. 특히 주일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성령집회 때는 더 많은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왔다.

특히 본 연구자가 부임 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둔 예배는 세대통합예배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이 편의상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맞는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예배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예배로, 청년들은 청년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예배가 각 수준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긍정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공동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한국 교회의 예배제도는 가족 구성원을 서로 격리시키는 역기능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신앙의 동질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찬송을 부르고 다른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 신앙은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들은 공유되지 못한다. 예배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가정예배의 정착이 자연스럽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듣고 배우고 할 기회를 교회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항상 전도사,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예배형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요 약점이다. 물론 한국 교회의 예배

14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3인 공역 (서울: NCD, 2000), 30-31.

제도는 나이에 맞게 예배형식이 선택되고, 이해하기 적당한 설교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예배가 교육이상의 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¹⁴⁴⁾

본 연구자는 이런 관점에서 부임 후 정기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세대통합예배(Intergenerational Corporate Worship)¹⁴⁵⁾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성인들만의 것도,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것만도 아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식을 통해서 각 세대가 만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단일화를 시행하는 것은 교회가 작기 때문이라든지 인간적인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아이가 어릴수록 지적인 활동보다는 정서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교인 모두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같은 시간 한 장소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¹⁴⁶⁾

이처럼 세대통합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¹⁴⁷⁾

첫째, 세대들과 가정들이 함께 재결합됨에 따라 가족들이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를 나누며, 그것과 더불어 선하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진솔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삶과 통합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이웃들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치유의 출발점이 되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144) 김봉성, *뿌리내리는 공동체* (서울: 사랑방, 1994), 56.

145)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예배예식서에는 세대통합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대통합예배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으로,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세대 차이에 맞춰 세대별로 따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배다. 가족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예배는 혼자 나오는 어린이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기에 세대통합예배라는 용어를 택한다.”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표준 개정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00.

146) John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109-119.

147)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에영 커뮤니케이션, 1997), 586.

성장해 간다.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도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들을 재연결하여 예배, 성경공부, 봉사와 놀이 등을 함께 하며 상호의존적인 될 때 교회와 가정은 더욱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예배는 교회와 가정을 더욱 성장시키고 공동체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석교회는 매년 2회 창립기념주일(3월 첫째 주일)과 성탄절(12월 25일) 때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성도가 함께 모여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빈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대통합예배 때 드리는 예배순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에서 추천하는 예배 순서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영석교회의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드린다.¹⁴⁸⁾

인도: 교육부 담당교역자

입례송 (온 맘 다해)

예배의 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성시교독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이 때의 찬양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현대적 찬송이 좋다.)

기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송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담당한다.)

성경봉독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봉독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설교 1 (교육부 담당교역자가 다음세대를 위해서 설교한다.)

설교 2 (담임목사가 전교인들을 위해 설교한다.)

합심기도 (이 때 전교인이 합심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교우 중에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들이 일어서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이어서 담임목사가 마침 기도를 드린다.)

찬양 (봉헌송/ 어린이나 청소년 찬양대가 담당한다.)

봉헌기도 (담임목사)

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담임목사)

148)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표준 개정판*, 201-205.

나. 양육과 훈련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성숙되어져야 할 장기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양육 프로그램의 부재는 성도들의 내적 신앙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만을 가져오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부임한 이후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과정은 '새가족반(4주) → 성장반(10주) → 제자반(30주) → 사역자반(20주)'이다.

성장반은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기존 신자들이 신앙적 양육훈련을 받은 지 오래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다. 믿음의 연수는 오래 되었지만 새신자와 마찬가지로 보면서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을 10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제자반은 30주 과정으로 성장반을 마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3기까지 수료하였고 현재는 4기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제자반은 교회의 향존적으로 섬기기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될 이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음으로 온 교회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자훈련 교재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이다. 제2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다. 제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이다.¹⁴⁹⁾

사역자반은 제자훈련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역이다. 제자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도자로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지도자반은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제자훈련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성도들을 섬겨 줄 때 교회는 추진력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지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권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고민과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149) 옥한흠, *제자훈련인도자 지침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8.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이 사역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세울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어떤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자리임을 알게 할 것이다. 훈련과정은 20주 과정으로 사랑의 교회 사역훈련 교재를 가지고 실시할 예정이다.

다. 전도

본 연구자는 부임 시부터 ‘땅끝전도팀’이라는 전도특공대를 조직하여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땅끝전도팀’은 1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주변의 아파트, 상가, 시장, 지하철역, 병원, 대학교 등지에서 커피와 전도지를 돌리며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라. 교제

영석교회 내에는 다양한 교제 그룹이 있다. 이러한 그룹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장을 중심으로 한 목장그룹과 찬양을 중심으로 한 찬양그룹,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그룹, 나이 별로 모이는 선교회그룹이 있으며,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그룹,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는 중보기도그룹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목회자가 맡아야 할 많은 일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그룹들이다.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그룹들은 그들의 교제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3 절 영석교회의 소그룹 형태 분석과 평가

지금까지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석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석교회의 역사와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이전까지의 영석교회의 사역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평가해 보았다. 이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한 사역의 변화들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현재 영석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 동안 소그룹 사역을 통해 얻은 열매들과 소그룹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평가해 본다.

1. 영석교회의 소그룹 형태 분석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소그룹 공동체 운동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다. 초대교회는 가정 소그룹의 총합이었다. 이에 대해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공동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¹⁵⁰⁾고 말하고 있다. 공동생활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함과 연대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하다.¹⁵¹⁾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존 부서들이 교제와 교회 활동의 폭들이 넓어질 수 있다.¹⁵²⁾ 또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석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가. 목장 소그룹

현재 영석교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소그룹은 목장이다. 부임 당시 영석교회의 조직은 24개의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구역들이 많았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구역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부임 후 다음 해부터 구역 조직을 목장 조직으로 개편하여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체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현재 영석교회에는 12개의 목장이 조직되어 있는데 한 목장에는 5-10명 정도의 목장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이라는 정의에서 보았듯이, 숫자에 민

15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38.

151) Ibid., 66.

152) Clyde Reid, *교회성장의 비결*, 고영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2), 19-20.

감한 게 소그룹이다.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기 쉽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을 만들 수 있다.

영석교회의 목장은 목자와 목장 구성원들로 구성된다(10명 이하). 목자는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장예배 자료는 본 연구자가 주일 설교를 요약하여 만든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교재를 매주 수요일 목장성경공부 시간에 배우고 금요일 각 목장예배 때 사용한다. 목자는 권사 혹은 집사가 맡고 있는데 목장의 활동은 먼저 매주 목장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의 활동은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장예배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친교하고 교제한다.

그러나 아직 목장모임이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전보다 목장모임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그룹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소그룹 공동체로서 목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나. 교육위원회 소그룹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이다. 이 소그룹은 교회학교의 발전과 계획을 위해서 모여서 연구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아이디어 그룹이다.

이 그룹은 아직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룹으로만 그치고 있어서 이 소그룹이 교사양성과 다양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나가면 더욱더 소그룹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회 안에서 교사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눔으로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찬양 소그룹

영석교회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실버 찬양대, 디바베 찬양팀, 아가 찬양팀, YES 찬양팀 등 6개의 다양한 찬양 소그룹들이 섬기고 있다. 이러한 그룹들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찬양 소그룹은 정기적인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소그룹의 기능을 잘 감당해 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이다.

목장이 타의에 의해서 모임을 가진다면 대부분의 찬양 소그룹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룹들보다 모임이 활발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찬양 그룹들이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이 강화되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도 소그룹

전도 소그룹은 전도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다. 전도 소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전도를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영석교회의 전도 소그룹은 5-10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인데 현재 2개 팀이 사역하고 있다. '캠퍼스 전도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땅끝 전도팀'은 수요일 오후 2시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인근에 있는 대학교, 아파트, 시장, 상가, 지하철역 등에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회 인근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을 섬기는 '병원 전도팀'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 중보기도 소그룹

중보기도 소그룹은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 구성된 소그룹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 내에서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임 시 부터 중보기도학교를 개설하여 중보기도팀을 구성하였는데 현재 5개의 팀이 요일별로 활동하고 있다. 중보기도 소그룹은 팀별로 3-10명 정도가 매주 1회 요일별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섬기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10여명의 중보기도팀들이 모여 1부 금요성령집회가 마치고 난 뒤 2부로 저녁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로 섬기며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나눔을 갖고 있다.

2.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열매들

영석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그룹 사역을 실시하면

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예배의 감격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고 소그룹을 통해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와 훈련을 계속한 결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역동적인 교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둘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목장모임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의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 성도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있다.

셋째, 성도들의 공동체의식이 강해졌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커졌다. 그 결과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며 전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넷째, 양적인 성장의 변화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3.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문제점

그러나 어떤 사역의 방법이든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다. 소그룹 사역을 실시하면서 영석교회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한다.

가.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의 어려움

영석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소그룹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그룹 모임을 위해 시간 내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린다.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들도 직장생활로 인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 여성들은 과도한 업무와 잘 분담되지 않은 가사일로 인하여 늘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직업을 갖지 않은 현대 여성들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많은 일들로 인하여 늘 분주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인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것은 맞벌이 여성이 많은 영석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나. 목회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소그룹 사역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영석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목회자의 역량이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앞으로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과 성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석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비중을 좀 더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야 하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교회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한 몸 된 교회가 유기체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들이 활발히 살아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배와 양육,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 평신도 사역자의 부족

또한 영석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 양성은 모든 소그룹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있을 때 소그룹이 더욱 활기를 얻으며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라. 리더와의 소통 부족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점은 소통의 문제이다. 특별히 리더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구성원들은 쉽게 소그룹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감정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토론이 진행될 때 구성원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자신이 모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구성원이 소그룹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선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

소통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단순한 정보의 흐름이나 생각의 교환 혹은 교묘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필요들을 받아들이고 용기와 지지를 얻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상호작용이며 조심스럽고 돌보아 주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다.”¹⁵³⁾

한스 핀젤(Hans Finzel)은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언급하면서 무조건 명령하지 말 것, 사람을 우선에 둘 것, 독불장군이 되지 말 것, 온 마음으로 대화할 것, 믿고 맡길 것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소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대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리더가 경청에 실패하는 것보다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다. 사람들은 리더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¹⁵⁴⁾고 강조한다.

마. 변화와 성장의 경험 부족

영성교회의 소그룹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소그룹에서 변화와 성장의 경험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구성원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한 인격적 교감과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소그룹은 그 특성상 모든 구성원들의 내적인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¹⁵⁵⁾ 따라서 리더는 성공적으로 소그룹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 그 소그룹의 목적은 구성원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써 소그룹을 하는 것이다.

소그룹에서 변화와 성장의 경험이 미비하게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이 리더들에게 있다. 어떤 리더도 소그룹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53) IVF자료개발부,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F자료개발부 편역 (서울: IVP, 1996), 99.

154) Hans Finzel,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조기현 역 (서울: 프리셉트, 2009), 126.

155)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9), 68.

그러나 변화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게리 브레드펠트(Gary Bredfeldt)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¹⁵⁶⁾고 말한다. 소그룹 리더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종종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려면 리더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하며 희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리더가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성원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성경말씀에 대한 리더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바. 남성 소그룹 사역의 어려움

한국 사회의 남성의 역할과 임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중하고 혹독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성 소그룹 사역은 직장 등 분주한 사회적 상황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폐쇄적 기질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모인다 하더라도 쉽게 자신을 열고 대화하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도출해 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남성들을 위한 소그룹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필요사역이다. 즉 한국의 남성들의 아픔과 고통스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건강하고 영적인 장치로서, 억눌린 영혼들을 위하여 치유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통로로서 남성 소그룹 사역은 꼭 필요하다.

사. 원거리 소그룹의 어려움

대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소그룹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속성이 있다. 영석교회의 경우도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교인들은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가 많다. 따라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소그룹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4장에서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석교회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영석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156) Gary Bredfeldt, *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 손덕호 역 (서울: 프리젱트, 2008), 26.

살펴보았다. 이어서 영석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까지의 영석교회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영석교회의 사역의 문제점들도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이전의 영석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사역과 조직 보다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구조, 당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고, 목회 비전의 공유나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지체의식이 생길 수 없고, 결국 목회자에 대한 신뢰 부족과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목회 리더십의 부재는 자연히 예배의 감격 부재, 양육과 훈련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영석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많이 결여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이처럼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체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시도한 영석교회의 사역의 변화들을 예배, 훈련과 양육, 전도, 교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영석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소그룹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난 소중한 열매들을 살펴보았다. 그 열매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고 소그룹을 통해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와 훈련을 계속한 결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역동적인 교회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목장모임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의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 성도간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의식이 강해졌고 이러한 변화들이 양적인 성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살펴보았다. 문제점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의 어려움, 목회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평신도 사역자의 부족, 리더와의 소통 부족, 변화와 성장에 대한 경험 부족, 남성 소그룹 사역의 어려움, 원거리 소그룹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5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영석교회가 추구해야 할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 5 장

영석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지금까지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영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그 이유는 소그룹의 핵심이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은 많은 장점과 유용성을 갖고 있다. 소그룹은 성도들의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데 있어 기본 단위이며, 성도들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기반이 되고,¹⁵⁷⁾ 그 곳에 속한 이들이 정서적, 영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며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소그룹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¹⁵⁸⁾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1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

영석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절에서는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소그룹 비전 공유, 소그룹 예배 교육,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 갱신 그리고 소그룹 리더십 확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57)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21.

158)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83.

1. 소그룹 비전 공유

먼저 영석교회가 소그룹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교회가 비전을 혼돈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회는 하나 된 비전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때 교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오브리 말퍼스(A. Marphurs)는 비전의 정의를 “비전을 행해 질 수 있고 또한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어떤 사역의 미래에 대한 선명하고 도전인 그림이다”¹⁵⁹⁾고 말한다. 말퍼스의 비전을 목회에 적용한다면 선명성, 도전성, 창조성, 미래성, 가능성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의 비전이다.

영석교회의 소그룹의 비전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석교회의 소그룹 비전 선언문은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행복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등의 5대 목회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소그룹 공동체의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전교회가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고자하는 공유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비전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함께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부임하여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설교를 통한 비전 제시이다. 담임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그 이유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4회에 걸쳐 주일예배 때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소그

159) A. Marphurs, *Developing a Vision for Ministry in the 21th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 1997), 31.

그룹 중심의 교회'라는 주제로 소그룹 비전 공유를 위한 설교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포할 설교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그룹 비전 공유를 위한 설교 계획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본문	사무엘상 10:25-27	로마서 12:10-13	열왕기하 4:1-7	히브리서 11:7
제목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원을 넓게 그리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
주제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통한 교회의 본질 회복과 사명	교회의 본질 회복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을 넓게 그리고 교회	믿음의 삶을 통한 관계 회복과 창조	모든 교회는 모험을 감행하든지, 관리하든지, 과거의 일을 추억하든지의 단계에서 사역하게 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전에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1월에는 4회에 걸쳐 오후 예배 후(주일 오후 3시 30분)에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 소그룹의 유용성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원리, 구체적인 실천방법, 성공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그룹 리더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도들의 사야를 넓혀줄 것이다. 세미나 시에 진행될 교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⁰⁾

160) 이를 위해 먼저 소그룹 사역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교회, 풍성한교회, 화평교회, 새들백교회, 월로우클리교회 등과 같은 교회들의 소그룹 실천사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예정이다.

1단계(자기소개, 22분)

1. 찬양하기(5분) :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2. 기도하기(7분) :

1) 고백기도는 찬양 후 인도자가 시작을 알림으로 침묵으로 고백기도를 2-3분을 한다. 그리고 인도자가 고백기도의 끝을 알린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2) 감사기도는 감사에 집중하여 2-3문장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돌림기도로 한다.

3) 중보기도는 인도자가 대표로 한다.

3. 본문 읽기(7분)

1) 본문을 그룹 회원 전체가 한 절씩 돌아가며 읽습니다.

2) 본문을 각자 두 번씩 읽습니다.

4. 묵상하기(3분)

2단계(관찰하기, 50분)

1. 관찰하기(본문 사건 재현하기, 25분)

2. 본문의 의미 찾기(해석하기, 25분)

3단계(삶에 적용하기, 18분)

1. 삶에 적용하기(말씀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9분)

2. 오늘 결단하기(4분)

3. 돌림기도하기(5분): 2-3문장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돌림기도를 하며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한다. 기도가 끝나면 바로 주기도송을 한다.

4. 주 안에서 교제하기

2. 소그룹 예배 교육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소그룹의 참된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공동체이다. 교회를 공동체 되게 하는 핵심은 예배이다. 예배자는 예배 참여를 통해 신앙의 모든 영역이 잉태되어지고 양육되어진다. 이에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는 예배는 교회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의식 생활 내지 제의 생활이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전승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⁶¹⁾ 분명 신앙의 전승에 있어 공동체성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으며,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양육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은 참여자라기보다는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들여지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보다 예배에 참여자로 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그룹 예배도 대그룹 예배를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올바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예배순서를 찾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깊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배교육의 강화는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동감 있는 예배의 분위기를 준다. 특히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딱딱해진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모임으로 변화되어진다.

161) John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105-106.

이를 위해 박은규는 예배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62)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한국의 샤머니즘의 영향에 의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교육이다. 예배는 전능하시며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단정하지 못하고, 들떠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매년 1월에 열리는 제직수련회와 매년 8월에 있는 전교인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매년 3월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4주간에 걸쳐 예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신학과 자세를 교육할 것이다.¹⁶³⁾

3. 소그룹 중심의 목회 구조 갱신

지금까지 영석교회의 구조는 전형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사역이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목회자 중심의 구조, 당회중심의 구조이었다. 따라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사 참여와 사역의 참여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역시 전혀 자발적인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인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이 공동체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구조의 변화가

16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4), 183-198.

163) 예배학교의 교재는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 발행한 예배학교 교재 1, 2권을 자체 편집하여 사용한다. 교육 과정은 1과 '당신의 예배생활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2과 '예배란 무엇인가?', 3과 '주일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세우라', 4과 '주일예배를 함께 만드는 의식을 가지라'이다. 김두현, *예배학교 교재 1, 2권* (성남: 21세기 목회연구소, 2002)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 목장(구역)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목장 모임을 단순한 예배 모임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진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교회는 '구역모임'을 '구역예배'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소그룹 목장 모임이 활성화 되려면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교제, 그리고 지역을 향한 봉사, 전도 등의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예배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목장 모임을 하나의 소그룹 모임으로 이해하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목장 모임을 단순한 예배 모임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진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영석교회는 목장 모임을 다양성 있게 하기 위해 모임을 집에서만 가지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구역 모임에서 볼 수 있는 목사나 구역장 등 인도자는 말하고 나머지는 주로 듣는 모임 형태를 지양하고 나눔과 토론이 있는 목장 모임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4. 소그룹 리더십 확립

소그룹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소그룹 리더십에 있다. 소그룹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승균은 리더의 손에 소그룹의 운명과 장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교회를 보면 아주 잘되는 소그룹(우리 교회에서는 목장)과 그렇지 못한 소그룹이 있다. 어떤 소그룹은 처음 출발할 때 소그룹 멤버들이 초신자들이거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갈수록 소그룹 모임이 왕성하다. 소위 부흥하는 소그룹이다. 반면에 어떤 소그룹은 처음에 제법 그럴 듯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형편이 말이 아니다. 소그룹 모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그룹 리더이다. 소그룹 리더의 영향력은 소그룹 사역에 절대적이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그룹은 모

입, 분위기, 활동 및 사역, 구성원들의 신앙성장, 영향력이 달라진다. 리더가 소그룹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¹⁶⁴⁾

이처럼 소그룹의 성패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영석교회의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리더십으로서 부모로서의 리더십과 코치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부모로서의 리더십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중의 하나는 먼저 지도자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와 같은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7-8에서 “우리는 ...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씀한다.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요를 일삼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옥한흠은 부모로서의 리더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⁶⁵⁾ 첫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로 편애하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가 솔직한 마음을 열어보일수록 소그룹 구성원들은 따뜻한 애정을 더 느끼게 된다.

나. 코치로서의 리더십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코치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⁶⁶⁾

164) 오승균, “탈진한 리더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월간디사이플, 2010년 12월호, 45.

16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64.

166)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7), 12-13. Joel Comiskey는 세계적으로 셀그룹, 셀교회 사역 관련 고문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에쿠아도르

소그룹의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일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코치가 있다. 이렇듯 소그룹 사역에서도 선수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는 코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코치의 목표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소그룹의 코치는 직접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며 소그룹 현장 사역자는 아니지만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그룹에서는 리더의 삶을 목양하는 코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역의 부거운 짐을 짊어진 리더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소그룹 코치 모델로서 구약성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 두 사람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변화시켰다. 모세는 현장 훈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수종자로 양육했다. 또한 신약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는 실패의 경험을 딛고 바위처럼 단단한 초대교회의 기반이 된다. 진정한 리더십의 대가인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격려와 사랑을 발견했다.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시 다소 의문스런 교리를 가르치던 위대한 웅변가 아볼로를 지도하고 코치해서 사역하게 한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코치는 문화적 혼돈과 교리의 혼란이 극심했던 에베소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강력하게 세워주었다. 이처럼 코치는 격려와 지원, 기도를 필요로 하는 리더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¹⁶⁷⁾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그의 책 *Coaching life-changing small group leaders*에서 이러한 코치의 주요 실천 원리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⁶⁸⁾

키토 지방의 C&MA에서 선교사로 사역했고 현재는 남 캘리포니아 주에서 셀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세계적인 셀그룹 운동을 연구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으며 다수의 신학교에서 부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167)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스심, 2010), 264.

168) Bill Donahue, *Coaching life-changing small group leaders; a practical guide for those who lead and shepherd small group lead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6), 16.

첫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라고 권면한다. 코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법은 삶을 통해서 본 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의도적으로 복양하라고 말한다. 소그룹을 섬기는 대부분의 리더는 자신의 그룹에 대해 비전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맡은 그룹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이냐는 대한 그림이 담겨 있다. 따라서 코치는 리더들에게 가이드를 하고 그들의 목표를 정의하고 비전의 날을 날카롭게 해 줄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함께 꿈을 꾸라고 말한다. 비전은 현존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며 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낸다. 소그룹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꿈꾸는 세계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기술을 개발하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코치들은 리더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무장시켜 그 그룹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 리더는 코치가 순종하는 삶의 모델이 되고 그들의 영성개발을 도와주며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코치의 기술이 리더에게 개발된다.

제 2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위에서 우리는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소그룹 리더 개발 전략, 지속적인 소그룹 개발과 관리,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먼저 영석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공동체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과 소그룹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 공간으로 쉼터 또는 북카페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석교회는 현재 교회 1층 공간을 쉼터(북카페)로 정비하여 평일 및 주일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장기 과제를 안

고 있다. 쉼터는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먼저 참석한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새신자들을 위해 주일에베가 아닌 평일에 쉼터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짐으로써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소그룹 리더 개발 전략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라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그룹의 핵심이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된 평신도 리더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재생산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⁶⁹⁾

따라서 소그룹 리더를 재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훈련이 되면 교회 안의 각종 소그룹에 배치되어 소그룹을 교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성을 지닌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는 동시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초대교회를 닮아가게 된다.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그룹 리더의 개발과 양육이다.

가. 소그룹 리더의 조건

소그룹의 리더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공통 필수과목이 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다. 소그룹 리더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장을 제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책임을 짐으로써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¹⁷⁰⁾ 소그룹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역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귀납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달 방법을 정해야 하지만 그것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소그룹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169)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91.

170) Bill Donahue,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14.

둘째, 따뜻한 사랑의 섬김이다. 리더가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 때문이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섬김의 리더십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섬기는 자세로 힘든 일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¹⁷¹⁾ 따라서 리더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동정심을 개발해야 하며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기꺼이 돌보겠다는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리더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결핍, 감정, 열망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의 필요와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리더는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¹⁷²⁾

셋째,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리더도 영적으로 지치기 때문이다. 빌 도나휴(Bill Donahue)와 그렉 보먼(Greg Bowman)은 리더들을 코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 연결되고 함께 공동체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소그룹 리더들은 효과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는 때때로 힘겨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고갈을 불러오기도 한다.”¹⁷³⁾ 리더는 종종 영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을 받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역자나 리더들의 리더를 통해 영적인 점검을 받고 코칭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y)는 방대한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은사의 리더만이 소그룹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성격유형이나 직업, 학력, 성별, 결혼상태 등이 소그룹 리더로서의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 그는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들은 특정한 은사보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⁷⁴⁾ 첫째, 열매 맺는 삶이다.

171) Hans Finzel,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30.

172) Gary Bredfeldt, *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 135-136.

173) Bill Donahue, Greg Bowman,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 코칭*,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5-6.

174)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45-53.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이다. 셋째, 분명한 소명의식이다. 넷째, 사역에 대한 열심이다. 다섯째, 신뢰도이다. 여섯째, 낮은 자리를 자청하는 겸손함이다.

나. 소그룹 리더의 훈련과 관리

오늘날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바쁜 현대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지만 처음 몇 기수까지는 잘 참석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훈련에 참석할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과도한 훈련에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훈련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영석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소그룹 제자훈련을 두고 있다. 먼저 10주간의 성장반 과정¹⁷⁵⁾을 통하여 소그룹 모임의 기본 이해를 갖게 한 후, 그 중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영적 자질과 인격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제자반과 사역자반에 참여시킨다. 성장반의 초점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 양육과 소그룹 사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자반과 사역자반은 소그룹 리더를 훈련하여 세우는데 초점이 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¹⁷⁶⁾

제자반은 30주 과정으로 성장반을 마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3기까지 수료하였고 현재는 4기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제자반은 교회의 향존직으로 섬기기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될 이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음으로 온 교회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풍토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자반의 교재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2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이다.¹⁷⁷⁾

175) 성장반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모집한다. 성장반의 교재는 본 연구자가 네비게이트 출판사의 제자훈련 교재를 자체적으로 요약,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재의 내용은 ‘1과 구원의 다리, 2과 기도생활, 3과 말씀생활, 4과 증거하는 생활, 5과 순종하는 생활, 6과 우선순위, 7과 경건의 시간, 8과 간증 생활, 9과 양육, 10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176)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93.

사역자반은 제자훈련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제자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도자로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사역자반은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제자훈련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¹⁷⁷⁾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성도들을 섬겨 줄 때 교회는 추진력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지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권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고민과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역자반은 1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이 사역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세울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어떤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자리임을 알게 할 것이다. 사역자반은 20주 과정으로 교재는 사랑의 교회 사역훈련 교재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사역훈련교재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성령-세 생활의 열쇠’, 2권은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3권은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이다.¹⁷⁹⁾

한편 이렇게 훈련된 리더들을 배치하는 문제야 말로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많은 리더들은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자리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리더로서 섬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리더들이 섬겨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실 많은 리더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섬겨야 할 곳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영석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그룹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의 은사를 파악하여 은사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연말이 되어 소그룹 리더를 배치하고 세울 때마다 겪는 어려움은 어떤 소그룹은 많은 리더들이 선호하는 소그룹이 있는 반면 어떤 소그룹은 섬기기를 꺼려하

177) 옥한흠, *제자훈련인도자 지침서*, 8.

178)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예수처럼 되게 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역훈련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 아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옥한흠, *사역훈련교재 1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4.

179) 옥한흠, *사역훈련인도자 지침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8-9.

는 소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 내 소그룹들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었지 소그룹 리더들의 은사별, 관심별로 배치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따라서 목회자는 훈련받는 기간 동안 리더로 세워질 이들이 가진 은사를 잘 발견해야 한다. 리더의 자리가 더욱 더 효과적으로 사역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고유의 은사를 잘 발견해서 배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석교회는 리더훈련 시 사랑의 교회 사역훈련 교재 안에 있는 사역의 장 프로파일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자신의 영적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사역의 장 프로파일은 4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테스트를 한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테스트이다. 3단계에서는 자신의 인간행동 유형(DISC)을 검사한다. 4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¹⁸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의 장을 찾게 된다.

한편 아무리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다. 이미 훈련된 리더라 할지라도 재충전이나 공급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리더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충성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들이 탈진되지 않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들이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동기부여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릭 워렌(Rick Warren)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적을 26일마다 한 번씩 되새겨 주어야 한다.”¹⁸¹⁾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평신도 리더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석교회는 소그룹 목장 리더들을 위하여 매주 목장 리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소그룹 목장 리더모임(오후 6시 30분 - 7시 30분)을

180) 옥한흠, *사역훈련교재 2권*, 90-94.

181)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128.

통하여 목장 리더들의 영적인 필요와 나눔 그리고 회복과 치유,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향존직분자, 목장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년 2회(5월, 10월) '봉사자 야유회'를 통하여 그 동안 사역으로 맺힌 긴장감을 풀고 친교를 통하여 한 몸 됨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3. 지속적인 소그룹 개발과 관리

소그룹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와 같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본 세포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소그룹은 내버려둬서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그룹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소그룹은 견고히 세워지고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

가. 소그룹 활성화 위원회 구성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이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석교회는 현재 침체된 소그룹 활동을 진작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을 개발하기 위해 소그룹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소그룹 활성화 위원회는 교역자들과 각 선교회장과 기관장들, 그리고 부서의 핵심 리더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소그룹을 만들도록 교회 앞에 홍보도 하고,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그룹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소그룹 활성화 위원회는 세부적인 조직으로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등의 5개 운영 위원회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회 내 소그룹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각 위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교역자 : 소그룹 활동 활성화를 총괄지도하며 소그룹 활동의 기획, 분석, 추진, 평가를 담당하고 소그룹 활동 위원들의 신앙 및 사기를 진작시킨다.

② 협력교역자 : 남녀선교회와 교구 담당 교역자와 협력하며 담당 남녀선교회와 교구의 소그룹 활동을 지도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③ 위원장 1인 : 소그룹 활동을 총괄 감독하며 사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한다.

④ 위원회 5인 : 소그룹 활동의 실질적 리더로서 교회 차원의 소그룹 활동을 대신 담당한다.

⑤ 남녀 신교회장 : 각 자치회 내 소그룹 활동을 감독 독려하며 선교 차원의 소그룹 활동을 담당한다.

⑥ 목장 리더 : 목장 소그룹 활동을 감독 독려하며 목장 차원의 소그룹 활동을 담당한다.

⑦ 소그룹 리더 : 자가 소그룹 활동을 독려하고 전 교인차원의 소그룹 활동을 수행한다.

⑧ 자문위원 : 소그룹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자문하고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나. 새로운 소그룹 개발

소그룹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따라서 소그룹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새로 탄생하는 소그룹보다는 소멸하는 소그룹이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에 적합한 새로운 소그룹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석교회는 새로운 소그룹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은사발견테스트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확인케 하고, 일상적인 재능이 교회를 섬기는 소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것이다. 현재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은 각종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소개하고 있다.

다. 기존 소그룹의 지원

새로운 소그룹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 가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소그룹은 자꾸 만들어지지만 쉽사리 사라지는 특징도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소그룹의 수명이 대부분이 일 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 년은 고사하고 의욕에 넘치도록 시작만 했다가 몇 개월도 못 가고 흐지부지되어

소멸하는 소그룹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일단 일 년을 넘기는 소그룹은 상당 기간 건강하게 보존되어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석교회는 새로 생겨난 소그룹이 일단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그룹의 필요에 따라 돕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그룹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그룹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리더를 재교육하며, 소그룹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4.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

여기서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이유는 목장은 교회의 핏줄이요 교회는 목장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다른 소그룹들에게로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목장은 이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분명한 몸의 지체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한 것처럼 목장이 건강해야 한다. 이전의 모습을 고치고 갱신하는 노력이 있다면 목장 소그룹은 성도의 삶과 신앙을 더욱 고무시킬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케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지역 중심에서 관심별 목장으로의 확대

생명력이 넘치는 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모임에서 관심적 모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는 지역중심적인 단어를 지역에만 국한시켜 해석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도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지역을 중심으로 목장이 조직된 교회가 많다.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면 전교인을 상대로 해서 목장을 편성하기 쉽고, 성도들에게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지역 중심으로서의 목장은 한계를 지니고, 더 나아가 목장의 역동성이나 지도력의 부재 등의 약점도 있다. 목장을 인도하는 목장 리더가 얼마나 능력 있게 목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목장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처럼 목장조직의 문제는 21세기 교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목장조직의 갱신 없이는 아무리 목장의 활성화를 외친다 해도 목장 활성화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목장조직의 갱신이 선행되어야 목장의 활성화가 따라올 수 있다. 목장조직은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서 조직되어야 한다. 목장조직은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장년 목회의 중심으로서 교회의 다른 조직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개인과 목장과 교회를 성장케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¹⁸²⁾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영석교회의 지역 중심으로 조직된 목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려면 더 이상 지리적 의미의 목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관심이나 취미, 배경이나 직업 등을 따라서 목장을 새롭게 조직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 중심적이되 취미나 관심에 따라 특수한 목장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된 목장 리더가 먼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기의 목장리더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¹⁸³⁾

현재 영석교회의 목장조직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거리가 먼 목장의 경우는 모임이 어렵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참여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목장 리더의 능력에 따라 목장의 생명력이 좌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목장조직을 지역 중심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직업, 동아리, 관심별로 목장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도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다면 더욱 더 모임에 힘쓸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역적 모임보다는 동아리 중심별, 직업별 중심, 관심거리별 중심의 목장 형성이 더 효과적 일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관심별로 묶어두고 장소를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가지도록 유도하고 부모들이 모임을 가지는 동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준다면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목장 모임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지역 중심의 목장조직을 유지하되 취미나 관심에 따라 특성화된 목장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

182) 임석중,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2), 108-109.

18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73.

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남성 목장, 신혼부부들로 구성되는 젊은 부부 목장, 어린 아기를 육아하는 어머니로 구성되는 육아 목장,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 목장 등과 같은 목장 소그룹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먼저 각 분야에 은사가 있는 리더를 발굴하여 양육할 생각이다.

나. 온 가족 목장모임으로의 회복

현대의 목장모임은 남성들과 자녀들의 참여도가 미비하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은 목장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현대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여성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목장모임이 이제는 노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모임으로 전략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영석교회의 목장모임 또한 여성들 특히 노인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직장인들과 자녀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목장모임을 자녀와 맞벌이 부부 등과 같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장모임의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목장모임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져서 직장인들과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목장모임이 가정교회로서의 모임으로 정착되려면 목장별로 목장모임 시간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주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온 가족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영석교회의 목장모임 시간은 목장별로 자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변경뿐만 아니라 목장모임이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교회로 정착되기 위해서 내년부터 ‘가족새벽예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초하루에 온가족이 드리는 ‘가족새벽예배’를 교회의 공식 예배가 되게 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존 목장 모임의 한계를 보완하고 온 가족의 목장모임으로 정착시키려고 한다.¹⁸⁴⁾

다. 목장의 소그룹으로서의 기능 회복

184) 목양교회를 담임하는 이광복 목사는 21세기 셀 목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셀의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가족교회’를 강조하면서 ‘가족새벽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을 가족교회로 회복시키고 있다. 이광복, “가족새벽예배”, 월간목회, 2002년 10월호, 182.

소그룹과 대그룹의 차이는 많다. 소그룹에서는 대그룹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속감과 친밀감 등 소그룹만의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인 목장이 대그룹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소그룹만의 유익한 경험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소그룹 활성화에 역행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목장모임’이 ‘목장예배’로 인식되어 리더에 의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장모임의 모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영석교회의 목장모임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목장 리더는 목장 구성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나서 목장 리더 모임 때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후에 지난 주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목장모임은 소그룹으로서 목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대그룹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목장 구성들이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영석교회의 목장모임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로서 회복하려면 목장 예배만이 뿐만 아니라 찬교, 기도, 전도 등 소그룹으로서의 목장의 다양한 장점들을 강화해야 한다. 목장에서 소그룹 구성원들의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여 목장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과 영적 친교를 나누게 하고,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 목장의 역량이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목장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목장의 성공 여부는 목장 리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매주 수요일에 있는 목장 리더모임(오후 6시 30분-7시 30분)을 통하여 목장과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 교육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으로서의 목장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장 구성원들의 진솔한 삶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진솔한 삶의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목장의 생명력을 잃게 한다. 이것이 그동안 영석교회의 목장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장 구성원들의 내적 치유를 통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석교회는 년 4회(3, 6, 9,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는 영락기도원) '1일 치유수양회'를 열 계획이다.¹⁸⁵⁾ 이 과정은 목장 안에 진솔한 나눔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연약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을 복음 안에 깨트리고 목장 안에서 진실 된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교회와 영혼을 묶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의 얽매이게 하는 끈이나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상한 감정과 상처들이 쓴 뿌리가 되어 관계 속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장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성과 친밀감을 회복하여 목장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본질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 전도지향적인 목장으로의 회복

현재 목장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목장이 세상을 향하여 닫혀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목장에서 친교만 강화하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기존의 목장 구성원들이 자기들만의 관계에 집착함으로 목장의 분가를 원치 않으면 목장은 더 이상 소그룹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석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전도는 소그룹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목적을 지닌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생명체의 세포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물체가 세포분열을 통해 성장하듯이 목장의 성장도 같은 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 소그룹은 몸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는 것이다.¹⁸⁶⁾

그러므로 목장은 지역의 전도를 위하여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도의 전초기지이다. 릭 위렌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략은 이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

185) '1일 치유수양회'의 교재는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성곤 목사 저서 *진인적 치유수양회* (부산: 두 날개 선교센터, 2003)를 편집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내용은 '참된 회개, 십자가를 경험하라, 견고한 진을 파하라, 영, 혼, 육의 진인적 치유를 경험하라, 성령충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6)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25-28.

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⁸⁷⁾ 이런 점에서 소그룹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된다. 한 명이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는 초대교회에도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다(요 1:41). 전도대상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위에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남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서는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소그룹을 통한 전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한국 초기 전도운동이 소그룹 전도였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학교와 의료시설들을 가져왔지만 이것은 왕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도는 선교사들이 매서인이나 전도부인과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복음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전형적인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소그룹을 통한 전도운동이었다.¹⁸⁸⁾

따라서 목장 소그룹을 통하여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영석교회는 ‘한 달에 한 이웃 갖기 운동’과 ‘한 해에 한 목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⁹⁾ 이를 통해 연중 목장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분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목장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목장을 재편성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준비된 목장 리더를 세워 새로운 목장을 개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장 개척은 지역에 관계없이 초대 한 사람이나 전도자가 함께 새로운 목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목장 구성원들의 친

187)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97.

188)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서울: 홍성사, 2009), 382.

189)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전도에 있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셀원들이 기억해야 할 목표를 세우지 못한 리더는 셀을 번식시킬 기회의 약 50%를 잃어버린 것이다.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 가능성을 75%로 늘어난다”.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36.

빌감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중앙대학교 캠퍼스 전도팀 모임, 매주 수요일 흑석시장 커피 봉사 전도팀 모임에 목장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도에 대한 동기 부여와 전도 훈련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조직적으로 목장 구성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중앙대학교 캠퍼스 전도팀, 중앙대학교 병원 봉사팀, 흑석시장을 중심으로 한 커피 봉사팀, 아파트 전도팀¹⁹⁰⁾, 9호선 흑석 지하철역 전도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장이 전도중심적인 목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한 영석교회는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매년 12월이 되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영석 행복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때 모금된 기금으로 흑석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흑석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노인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가정당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포장하여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다. 이 때 목장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목장 구성원들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섬김의 삶을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 년 1회 진행되고 있는 ‘영석 행복나눔 캠페인’을 년 2회로 확대하여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영석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독거노인들을 목장과 1촌 맺기를 하여 교회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소그룹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섬기도록 할 것이다.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서 목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짐장을 담은 봉사나 목장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병원에 동행해 주거나 청소, 말벗이 되어주는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아이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5장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전교인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소그룹 예배 교육을 강화하며, 전통적인

190) 현재 영석교회 주변에는 명수대 현대아파트, 한양 현대아파트, 해가든아파트, 동부 센트럴 빌 1차, 2차 아파트, 동양아파트, 유엔미아파트, 청호아파트 등의 여러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다.

목회구조에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로 변화되어야 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부모와 같고 코치와 같은 이상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주는 것이다. 또한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소그룹 리더 개발 전략, 지속적인 소그룹 개발과 관리,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이유는 목장은 교회의 핏줄이요 교회는 목장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다른 소그룹들에게로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목장 조직을 지역 중심에서 관심별 목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목장 모임 시간 변경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목장모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목장이 대그룹의 예배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그룹으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장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목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세상을 향하여 닫혀 있는 폐쇄적인 목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장이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 전도지향적인 목장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영석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공동체성이 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성 결여'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현대의 수많은 교회 현장과 학계에서 교회의 위기 즉 '복음을 상실한 교회,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 다양한 이념의 갈등, 신학과 신앙의 괴리, 교회의 도덕성 해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등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현장과 학계에서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대형화와 물량주의 정책이 교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 이 시대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계속 유실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목표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그 방안이 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특성을 살피기 위해 본 논문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이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어원적 의미와 교회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해

하는 그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공동체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살펴본 이유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성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소그룹 사역을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소그룹 사역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소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소그룹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와 같은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와 소그룹의 관계는 편의상 형성된 관계가 아니다. 본질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소그룹 중심이어야 하고 소그룹은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며 생명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영석교회의 목회적 상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석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영석교회의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영석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이어서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까지의 영석교회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드러난 영석교회의 사역의 문제점

들을 평가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이전의 영석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사역과 조직 보다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의 구조, 당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뚜렷한 비전 제시가 없고, 목회 비전의 공유나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지체의식이 생길 수 없고, 결국 목회자에 대한 신뢰 부족과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목회 리더십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감격 부재, 양육과 훈련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영석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많이 결여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이처림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채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며 시도한 영석교회의 사역의 변화들을 예배, 훈련과 양육, 전도, 교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영석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소그룹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난 소중한 열매들을 살펴보았다. 그 열매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고 소그룹을 통해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와 훈련을 계속한 결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역동적인 교회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목장모임을 통하여 신앙 안에서의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 성도간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의식이 강해졌고 이러한 변화들이 양적인 성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영석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살펴보았다. 문제점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 모임의 어려움, 목회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평신도 사역자의 부족, 리더와의 소통 부족, 변화와 성장에 대한 경험 부족, 남성 소그룹 사역의 어려움, 원거리 소그룹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전교인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소그룹 예배 교육을 강화하며, 전통적인 목회구조에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구조로 거듭나야 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부모와 같고 코치와 같은 이상적인 리더십을 확립해 주는 것이다. 또한 영석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소그룹 리더 개발 전략, 지속적인 소그룹 개발과 관리,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특히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는 이유는 목장은 교회의 핏줄이요

교회는 목장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목장 소그룹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다른 소그룹들에게도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장 소그룹 활성화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목장 조직을 지역 중심에서 관심별 목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목장 모임 시간 변경과 온 가족이 모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목장모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목장이 대그룹의 예배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그룹으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장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목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세상을 향하여 닫혀 있는 폐쇄적인 목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장이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 전도지향적인 목장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본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창조되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비공동체적인 대그룹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연구자로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교회 성장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방법론과 더불어 소그룹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면 교회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공동체성 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그룹 사역이다. 소그룹 사역은 하나의 유행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요 방법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소그룹 사역은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 소그룹 사역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고 있다. 이는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의 본질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평신도 지도력을 계발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부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어 역동적으로 일하게 한다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진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강한 훈련이 연약한 군사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 내듯이 강력한 훈련이야말로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무엇보다 평신도를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리더십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저작

-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세미나자료집. 1998년 5월호.
- 권문상. 부흥 이개인 1907. 성남: 브니엘, 2006.
- _____.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개혁신학. 2005년 18집.
-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 김두현. 예배학교 교재 1, 2권. 성남: 21세기 목회연구소, 2002.
-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종교사회학적 접근.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김봉성. 뿌리내리는 공동체. 서울: 사랑방, 1994.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7.
- _____. 전인적 치유수양회. 부산: 두 날개 선교센터, 2003.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김영민. “소그룹의 네 가지 유익.” 디사이플. 2004년 10월호.
-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와 신학. 1992년 8월호.
- 김중기. 현대사회와 목회실개.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학술자료원, 1989.
- 김중기 외. 한국 교회 성장과 신앙양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2.
- 김현진. 공동체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노치준. “한국교회와 개교회주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상. 1986년 5월호.
- 명성훈. 부흥뱅크.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 _____. “한국 교회와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총신대 논총, 1997년.
-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 박영철. “교회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호.

- _____. “가정 셀 그룹 교회에서의 셀 그룹 구조와 기능.” *복음과 실천*. 2004년.
- _____.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 오정현. “창조력 있는 사역은 팀 사역에서 나온다.” *목회와 신학*. 1995년 9월호.
- 육성득. *한반도 대부흥*. 서울: 흥성사, 2009.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_____. *제자훈련인도자 지침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_____. *사역훈련인도자 지침서*.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_____. *사역훈련교재 1, 2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1.
- 이광복. “가족세벽예배.” *월간목회*. 2002년 10월호.
-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_____. “한국 교회 목회구조 갱신의 방향.” *신학과 세계*, 1982.
-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2003.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 이원설.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대전: 한남대학교, 1990.
-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임석중.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2.
-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980년 6월호.
- 정태일. “코이노니아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1993년 12월호.
- 총회예식서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 예식서-표준 개정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복회*. 서울: 두란노, 1999.
-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최성수. “교회 공동체성의 근거로서의 삼위일체.”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호.

체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 2007.
 IVF 자료개발부.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P, 1996.

2. 번역 서적

Arthur, Kay *하나님의 이름*, 유윤호 역. 서울: 프리셋트, 1996.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7.
 Branick,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Bredfeldt, Gary. *위대한 교사 위대한 리더*. 손덕호 역. 서울: 프리셋트, 2008.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_____.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07.
 Donahue, Bill.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태, 1997.
 Donahue, Bill, Bowman Gre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 코칭*.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Donahue, Bill,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Easum, William M. *교회성장 핸드북*.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Finnell, David.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9.
 Finzel, Hans.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조기현 역. 서울: 프리셋트, 2009.
 Frazee,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George, Carl F.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전의우 역. 서울: 요단, 2002.
 _____.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 2000.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Grenz, Stanley J.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Icenogle, Gareth W.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 Jay, Eric G. *교회론의 변천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Kuzmic, Peter.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7.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 Ladd, George E.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93.
- _____.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MacArther, John.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_____. *양무리모임론*. 장의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 출판부, 1987.
- Mallison, Joh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McBride, Neal F.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2006.
-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Muller, Donald.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Nicholas, Ron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규 역. 서울: IVP, 2005.
- Reid, Clyde. *교회성장의 비결*. 고영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2.
- _____.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콤파, 1996.
- Robertson, Palmer. O.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3인 공역. 서울: NCD, 2000.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Stanley Andy, Willits Bill.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테, 2006.
- Toffler, Alvin. *제 3의 물결*.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1992.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1997.
- _____.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테, 2003.
- Weber, Robert.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esterhoff, John.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3. 외국 서적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7.

Donahue, Bill. *Coaching life-changing small group leaders; a practical guide for those who lead and shepherd small group lead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6.

Johnson David, Johnson Frank,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New Jersey: Prentice-Hall, 1982.

Marphurs, O. A. *Developing a Vision for Ministry in the 21th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 1997.

Stedman, Ray C. *Body Life*. Gleandale: Regal Books, 1972.

Vita of
Sung Hyun Cho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Young Seok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October, 1, 1968
 Marital Status: Married to Hyun Jo Kim
 with two Children, Hajun and Hayun
 Home Address: #101-312 Heukseok-dong Myungsudae Apt,
 Dongjak-gu, Seoul,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18, 2000

Education:

B. A: Busan University, Busan, 1994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7
 Th. 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011 to present: Senior Paster
 of Young Seok Presbyterian Church, Seoul
 1/2004 to 12/2010: Assistant Pastor
 of Kangbuk Jeil Presbyterian Church, Seoul

1/2002 to 12/2003: Assistant Pastor
of Seodun Presbyterian Church, Suwon